朝鮮日報 夕刊 五日(木)

三轉四轉하는北中時局
中央의懷柔가奏効 宋哲元氏遂屈服
國民黨機關中央通信을通해 北中自治反對를聲明

【北平四日發電通至急報】北中의 危局은 如何히 打開될는지 何應欽氏의 北平進出에依하야 中央派와 宋哲元氏等北中自治派와의 間에는 深刻한 折衝이 繼續되여 마침내 右나左나 라는 最後의 決定的場面에 直面하게되엿다 四日夕刻 宋哲元氏는 突然 國民黨機關中央通信을通하야 從來의態度를 一變하야 北中自治反對意思를 聲明하고 俄然何應欽氏의 懷柔가 奏功된것이라하야 各方面에 衝動을 與하엿다

自治反對聲明內容

【北平四日發電通】何應欽氏의 北上으로 俄然態度를 豹變한 宋哲元氏가 四日國民黨機關中央通信을 通하야 言明한 北中自治反對聲明內容은 左와如하다

余는 中國의官吏이므로 中國의利益에 反對되는 一切의行動을 할意思는업다 北中에잇서 自治를 宣言하는것은 他人에게끌리어 그의손에操縱되는것이다 余는 今後行動을 決定할것은 中央政府의命令以外에는 아모것도업다는것을 玆에 言明한다

그리고 余는 三日夜 何應欽氏와의 會見에잇서 左의三點을 決定的으로 快諾하엿다

一、余는 斷然 反對에屈服치안켓다
二、中央의命令에 絶對服從하겟다
三、北中事態에關하야 如何한 第三者와 秘密諒解를 成立하지안흘것

宋氏態度또轉變?
自治斷行態度把持乎

【北平五日發電通至急報】宋哲元氏는 五日午後八時까지에 北中自治斷行의 具體的態度를 表示할 旨를 日本關係方面에 確言하여왓다 따라 宋哲元氏의 運命은 그때까지 左右어느便으로 決定할 最後의 段階에直面하게되엿다

【北平五日發電通】何應欽氏는宋哲元氏에게 對하야『自治를 實行하면 中央政府는 武力으로서 壓迫할것이며 萬若 此를停止하면 國家의英雄으로 오래 中國의柱石이될것』이라고 脅迫과 懷柔의二方面에서 極力自治拋棄를 說服하엿다 이에對하야 宋哲元氏는『一步그릇하면 北中은 兵亂의巷으로 化하야 八千萬民衆은 戰火의犧牲이될것이다 英雄이되여 馬占山과갓치되는것보담 自治를斷行하야 人民의大犧牲을救하라』고 主張하게되엿다 時局은 又復 三轉四轉의兆를 보이고잇다

解決法發見코저 委員會를組織
南北首腦部會議서

【北平四日電通】宋哲元氏邸에서 열린 四日午前 首腦部會議에 繼續하야 午後三時부터 居仁堂에서 南北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午後六時까지 繼續하엿엿는데 右席上에서 北平及 天津에잇는 北京政府時代國務總理及 鐵道等의 經驗을가진 在野政客을 招致하고 委員會를 組織하야 그 意見을 聽取하고 解決辦法發見의 參考로하라는 意見이 有力하야 一兩日中에 實行하기로되엿다

國府、第三國에依한 日本牽制策進行?
外省、警戒的으로監視

【東京電話聯合】南京政府는 何應欽氏를 北上식혀 北中解決法工作을勸하는 一方 歐米駐剳大公使를通하야 北中에對한 日本의脅威를 宣傳하고 九個國條約加盟國會議招集及 聯盟理事會新의 內意를表明하야 所謂 第三國에依한 日本牽制策을 進行하고잇는 模樣이다 日本側에서는 이러한事實은 南京政府의無反省한 歐米依存政策의 再擡頭이며 廣田三原則에對한 具體的反響이라는 見解를가지고 此種策動이 繼續되는限 情勢는 中國에 有利하게 展開되지 안흘뿐더러 東亞安定維持促進에 對한 現狀에 歐米諸國의 不測의 策動素地를 與하는것이라하야 極히 警戒的態度로서 監視하고잇는바 情勢如何에 依하여는 南京政府에 斷乎 猛省을 促하는 同時에 北中事態에 對한 世界的認識是正을 期하는 處置를 講究하리라하야 그推移를 注目하고잇다

中國側逆宣傳으로 現地官憲態度硬化

【天津四日發電通】南京政府側에서는 北中民衆의 自治運動을 日本의 一部軍人의 策動에 呼應한 暴力團과 失位政客의盲動에不過하고 民衆은 無關心하다고 逆宣傳을 行하야 國內는 勿論日本에까지 波及되고 잇는 模樣인데 今次 民衆의 蹶起는 國民黨을反對하는同時에 防共自治를 目標로 平和鄕建設理想을 向하고 邁進하려는信念의 發露라하야 日本의駐中官憲은 日本軍部를 諒解하는 逆宣傳에 斷乎手段을 講究할 必要가잇다하야 그態度는 硬化되여잇다

自治?隱居? 宋氏의態度監視

【北平五日發聯合】宋哲元氏는今月中에 自治要求가 容認되지안는限 即時 一切의 公職에서 떠나 北平郊外西山으로 隱退할決意를 鞏固히하고잇는데 右決意는 이미 日本側에도 披瀝되엿는 模樣인데 宋氏가 自治運動이나 아니하는 最後의 試金石으로 今夕까지의 行動은 日本側도 嚴重監視하고잇다

北平大學敎授等 自治運動反對
脅迫的인主張을吐露
自治成立되면全大學이南遷한다고

【北平四日發電通】北方自治運動에對하야 反日意識下에 가장强烈한 反對態度를 取하고잇는 北京大學校長蔣夢麟 同敎授胡適氏以下 各國立大學校長及敎授等은 이미 過般來 屢次 宋哲元氏等自治派首腦部에 對하야 反對意思를 表明하고잇섯는데 四日午後一同은 何應欽氏를 訪問하고 露骨的으로 自治反對意見을 陳述하엿다 彼等은『萬若 北方自治가 成立되면 南京政府에 全大學의 南遷을 要請하고 約一萬의 學生을 北平으로부터 解散하라』고主張하엿는데 自治派首腦部는 極力 彼等의 說服에 努力하고 잇다는바 自治運動에잇서 重大障碍로 注目되여잇다

再次何氏에 重大通告
駐屯軍當局決定

【天津四日發聯合】自治運動의進展과함께 共產黨 藍衣社等의活動이 猛烈하게되어 何應欽氏의北上을 機會로 益益尖銳化하야 或은 殷汝耕氏의 暗殺說을 流布하나 平津一帶의 人心不安은 極度에 達하여잇슴으로 日本北中駐屯軍當局은 右事情을 자못 憂慮하고 治安維持上 梅津何應欽協定에 基하야 再次何應欽氏에 對하야 重大通告를 發하기로 決定하엿다

敎學刷新評議會 첫總會開會

【東京電話聯合】敎學刷新評議會初總會는 五日午後一時半부터 文部省會議室에서 開會 會長松田文相 白根委員外各委員出席 爲先松田會長으로부터 右와如한演述이잇슨後 會議에 入하야 諮問案『我國敎學의現狀에 鑑하야 刷新振興을 圖할方策如何』를 議題로 協議하엿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夫人家族同伴 五日午前十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 濫陽에向하엿다 一週間乃至十日間滯在할豫定

▲關口聰氏(京城專賣支局長)洋行

人事次來社

八面錄

飢寒에直面한 冷害民이 咸南에만 十萬餘名、그救濟費로 八十萬圓이 必要타고。

◇

每人압헤 八圓이니 이八字를 가지고 저八字를 고친다하면 七顚八起의 僥倖。

◇

昨年中水害의 土木關係被害만 一千四百萬圓、農土와 農作物 家藏什物의 個人損害는 抑幾何오。

◇

그中에도 洛東江流域이 全朝鮮被害의 三分之一이라하니 그곳에사는사람 三旬九食이나하는가。

◇

地主數로는 四十五萬人이늘고 所有面積으로는 八萬三千町步가 줄고。

◇

이것이 朝鮮사람의 土地所有로본 富의動態라고 한다。

◇

生產手段이라고는 아모것도업고 祖先傳來의 땅마지기마저 팔어먹은뒤에는 무엇으로 엇더케살어갈것인고。

一般軍縮討議압서 政治問題討議不可避形勢
極東不侵略又는不脅威協定을提議乎
軍縮會議日本側作戰

【倫敦四日發電通】軍縮會議에臨할日本側作戰에 關하야 權威잇는側에서 聞知한바에依하면 日本은 爲先 政治的問題 特히極東不侵略又는不脅威協定問題를提議하야 此等諸問題가 希望대로進展되지안는限 戰艦其他의諸艦種問題의協議에入할意圖는 업는듯하다 即永野全權은 政治的問題의討議에關하여는 本國政府로부터 特別한 訓令은 밧지못하엿다고하며 政治的問題의 討議는 一般軍縮問題와 別個로 討議할수잇다는 見解도 서나 그러나 一般軍縮問題를 議論함에當하여는 爲先 政治的問題의 討議가 先決問題이며 또海軍比率은 當然一國의 安全感及 國威의 問題에 依하야 決定될것이므로 政治的問題의 討議는 避할수업다고한다 永野全權은 主要原則은 日本及各國의 安全感의 問題라는것을 認識하고잇는바 本原則이 容認되고 英米의 五五三의 比率이되지안는限 如何한艦型縮少의 提案도 承認할수잇다는것이 日本代表의 立場이라고解釋되다

軍縮本會議 九日午前에開會

【倫敦四日發電通】海軍軍縮會議는 마친내 來九日午前十時三十分(日本時間九日午後七時三十分)부터 英吉利外務省로카르노室에서 開催된다는것을 四日正式으로 發表하엿다

太平洋의平和確保에 日本은協力
永野全權決意를披瀝

【倫敦四日發聯合】開會를 五日後에앞두고 日本全權部는 會議準備에 忙殺되여잇는데 永野、永井兩全權은 四日午前은 內外新聞記者團과 會見하엿는데 特히 永野全權은 各國記者의 總攻擊의 應接에 奔忙되여잇는 現狀인데 右記者團에게 午前 左와如한 인터뷰를與하엿다

日本政府의 關心의 中心은日本領土의 安全이다 日本政府는 日本이 必要하는 安全이 保障된다고 하면 敢然 太平洋不可侵條約締結을 歡迎하랴는바이다 但 余는 今回의會談에 際하야 新條約을提案하라는 訓令은 밧지못하엿다 英國政府는 建艦計畫案에 對하여는 只今 어떠타고말할수업다 日本은 右立場에서

一、英米兩國과의 海軍兵力均等
一、戰艦航空母艦 大型巡洋艦等과如한 大型艦艇의 廢棄

를 主張하는데 日本으로서는特定諸條件이 容認된다고하면 潛水艦의 廢棄까지 반드시 拒否하는것이아니다 獨逸、蘇聯邦은 萬一 新海軍協定이 此等諸國을 包括한 協定을 締結할時에는 當然 參加할것이다

軍縮會議 發言順決定

【倫敦四日發聯合】來九日부터開會될 軍縮會議席上의 各國代表發言順序는 左와如히 發表되엿다 英吉利(볼드윈首相)米國(노만데비스全權)濠洲、加奈陀、佛國印度、愛蘭自由國、伊太利、日本뉴질란드南阿聯邦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要塞、海軍根據地 英米自由로擴大
(十八) 雲崗生

若干、重複의 嫌이 업지 못하나、余는 이자리에서 華盛頓條約第十九條를 全文을 드러 紹介하고저한다。

『合衆國、英帝國及日本國은 左揭한 各自의 領土及屬地에서 要塞及 海軍根據地에 關하야 本條約署名時에 잇서서의 現狀을 維持하기로 約定함。

(一) 合衆國이 太平洋에서現領有하고、又는 將來取得할島嶼인 屬地。但、(가)合衆國、아라스카及 巴奈馬運河地帶의 海岸에 近接한 島嶼(아류-샨群島를 包含치 아니함) 並히 (나)布哇諸島를 除함。

(二) 香港及英帝國이 東經百十度以東의太平洋에서 現領有하고、將來取得할 島嶼인屬地 但(가)加奈陀海岸에 近接한島嶼、(나)濠太利聯邦及그領土、並(다)新西蘭을 除함

(三) 太平洋에 잇서서의 日本國의 下記의 島嶼인 領土及屬地、即、千島諸島、小笠原諸島、奄美大島、琉球諸島、臺灣及彭湖諸島 並히日本國이 將來取得할太平洋에 잇서서의 島嶼인 領土及屬地

前記의現狀維持라는것은 右揭領土及屬地에서 新要塞又는海軍根據地를 建設치아니할것。海軍力의 修理及維持를爲하야 現存한海軍諸設備를 增大하는 施設을 取치아니할것。並히右揭한 領土及屬地의 沿岸防禦를 增大치 아니할것을 約함 但右制限은 海軍及陸軍의 設備에 잇서서 平時慣行함과 가튼 磨損한 武器及裝備의 修理及取替를防치아니함』

右揭가 有名한 華府條約第十九條다。

文面을 보아 알바와가치 여기서 말하는 現狀維持는 時間上으로는 華盛頓海軍條約署名當時 即一千九百二十二年二月六日에 잇서서의 右特定島嶼의 現狀維持를 意味하는것이다。그러고、單純히 屬地又는 領土라고 안코、반드시『島嶼인屬地』又는『島嶼인 領土及屬地』라고 하야 島嶼에 限定한것은 文義解釋上 注意를 要할바며、또한 英米의 境遇에 잇서서는『島嶼인 屬地』라고 잇는데、日本의境遇에 잇서서는『島嶼인領土及屬地』라하야 領土二字가더 부튼것도 亦是、文義解釋上注意를 要할바이다。

그러고 또 英米의 境遇에잇서서는 但書를 부처가지고 防備制限規定(現狀維持條項)으로부터 除外한것이 만혼데 日本의 境遇에 잇서서는 그러케하지안코 防備制限에 드러갈 島嶼를 列擧式으로 해노흔 點도 亦是 文義解釋上、注意를 要할바다。

그러니까 但書로 除外되는英國又는 米國의 屬地는 防備制限規定外에 잇는것이니까、그要塞及 海軍根據地는 英國 又는 米國의 마음대로 擴大强化할수가 잇는것이다。

그러고 英國의 境遇에 잇서서『東經百十度以東』이라고 區劃해 말한것은 英國의 有名한 海軍根據地『씽가폴』(씽가폴은 東經百三度)을 防備制限規定으로부터 除外하기 爲한것이다。

何如間、前記의 防備制限規定에 依하야 日本은 防備制限區內에 드는 島嶼를 列擧式으로 써 노앗스니까 다시말할것이 업거니와 英米의 境遇는 어떠케 되엿느냐하면 아래와가트다。即 海軍根據地로서 第一로 問題되는 點만을 드러말하면

一、米國의 比律賓、구암等은 防備制限規定內에 들고、布哇는 들지 아니하얏다。

二、英國의 香港은 制限規定內에 들고、씽가폴은 制限規定內에 들지 아니하엿다。

이러케 보아오면 이規定이 亦是、日本의 立場으로 보아서는 若干、不公平하다는 嫌이 업지 못하다는 理窟를 알것이다。이제 이에 對한 日本의 見解를 드러보면 이러하다。

『太平洋防備制限規定은 一見機宜에 適한 軍縮의 基礎構築이오、太平洋平和機構의 一支柱와 가티 보이나 仔細히 그內面을 檢討하면 日本의 立場으로 보아 큰 不滿을 禁치 못할 叢多의 缺陷이 藏해 잇다。即 此에 依하야 太平洋의 平和를 確保하며、太平洋上에 잇서서의 軍縮의 背景이 되게 하랴면 몬저 制限範圍에 잇서서 公正치 아느면 안될터인데、此點에 잇서서만 過重한 負擔을 지게 한것이라고 指摘할수박게업다』

이것이 現狀維持條項에 對한 日本의 見解인데、이 見解의根據는 米國은 그本國으로부터相當히 머른 布哇、英國은 亦是 씽가폴을 除外하면서 어찌하야 그本國으로부터 如干멀지아니한 日本에 對하야는 本國과指呼의 間에 잇는 領土、屬地까지 制限規定內에 너케 하엿느냐하는 點에 잇다。(繼續)

華府條約關係條項의 效力延長이問題
日米間에意見對立乎

【倫敦四日發電通】來軍縮會議에 對하야 日本側이 政治的問題의 先議를 要望할것은 周知와 如한데 이 結果 華府條約의 太平洋防備制限의 條項을 效力延長할는지 안할는지에 關하야 日米間에 意見對立이 豫想된다 即 永野全權은 華府條約第十九條의 太平洋防備制限條項은 五·五·三의 比率決定의 前提條件으로 制定된것이 아니라는 見解를 가지고 華府條約廢棄後에도 同條項의 效力延長을 希望하는데 對하야 米國側은 同條項은五·五·三의 比率設定要件으로 日本이五·五·三의比率을 廢棄하고 軍備均等을 要求하는以上 同條項도 當然 失效되리라 하야 日本의要求에 反對할것은 確實하다 最近 英紙는 日本이 太平洋防備制限條項의 擴大를 要望하리라는 觀測을 자조 報道하고 잇스나 日本代表部에서는 如斯한 計畫에 關하여는 本國政府에서 何等訓令을 밧지못하엿스나 全權團의 東京出發後、三週間을 經由한今日 東京에서 如斯한 形勢로轉한것은 생각할수잇다하야 永野全權은 新聞記者團에對하야『西太平洋에關한 不侵略條項이 四國間에 締結되면 効果는 莫大하리라고 보고잇다』고 말한것은 會議에잇서 日本의態度를 暗示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누가내구주(救主)?

한 구주이라면『한』은 부정관사(不定冠詞)이라 구주는 구주시나 내 구주도 아니오 또 어느 다른 사람의 구주도 아니오 누구의 구주인지 아지 못하는 말이다

그 구주이라면『그』는 정관사(定冠詞)이라 다만 그 구주뿐이오 다른 구주도 업고 다른 돌는자나 피리처 될곳 이업다 함이니 천하인간에 또 다른 구주가 업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 구주이라면『내』라는 말은 제一인칭 대명사(第一人稱代名詞)의 소유격(所有格)이니 만인의 구주라는것 보다 내 구주가 잇어야 살고 그러치 안흐면 죽것다는 것이다 경에 일으기를『이곳 내게 요구되는 구주이란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내게 그 구주가 잇『예수는……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게하엿으니……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바다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엇지 못하리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들수 업나니라』한것이다

腫氣 靑山膏에옴히벽고

原料直品價格廉價信用

醴泉邑內南山町(振替京城二四五六七)
慶北醴泉德興染料製造工場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12—ㅁ

はれやか 명으氣分天下 잘은氣分 一圓腦의藥劑

訃告 父 ... 五日午前五時三十分 ... 親戚總代 友人總代 ... (本社)

大賣出景氣에딸아 年末防犯陣의强化

警戒는十五日부터三期에노나서할터

市內五署司法主任會議

거리거리에 년말대매출의 기ㅅ발이 펄펄날리며 경품(景品)을 부치서 싸게판다는광고삐라가 곳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 쥐여짐에딸아 사람의 발뿌리는 각백화점、상점、은행 회사등으로 모혀든다 번잡한장소에 따르는범죄와 어슥한곳에 따르는범죄등 각종의범죄도 사람의 움지김이 빈번함에따라 가속도적으로 늘러가는 현상이다 년말을앞두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손빨리 체포코저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삼일오후에 부내각 사법 주임회의를 사일 오후에 각서장 회의를열고 년말 특별 경계에관한구체책을협의한결과 금년에도 례년과가티 십오일부터 삼십일까지 특별경계를 실시키로 결정되엿는데 그동안을 제일긔 제이긔 제삼긔로 나누어 방범(防犯)에관한삐라와포스타를 산포하야 일반부민의 정신을깨워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한편 중요한 금융긔관회사백화점 상점 갑부자ㅅ집등의 경계를 엄중히하고 전과자조사와 비상검문을 힘써하야 년말장안의 경계전선에 실수가 업도록 각서가 서로련락을 취하야 경계제일선에서기로 되엿다한다

鍾路署防犯週間 六日부터宣傳開始

선전포스터와 삐라등을산포

全署員이動員警戒

십오일부터 실시할 년말특별경계를 앞두고 부내 종로경찰서에서는 륙일부터 십사일 까지를 그전초전(前哨戰)인 방범(防犯)주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영정(永井)사법주임이하 사법계 형사전부와 외근순사를 총동원식혀 범죄 방지 『삐라』와 『포스타ー』를 배부하고 관내에잇는 금융긔관 부호기타 가정에 강절도가 침입할수잇는 곳을 조사하야 이를 고치게하는한편 전과자조사 자전거 일제취체등을 엄중히하야 예방경찰의 실적을 나타내기로 되엿다한다

거리의惡菌들 좀도적續出

本町署에昨日三件

저물어가는 년말풍경ー도적도 압길이 밧분지 각처에서 자전차 절도가 빈발하야 지난사일 하로 동안 본정서 관내에만 세건이잇섯는데 그들은 훔친자전차를 타고도라다니다가 당일에 붓들니고 마럿다

▲충남서산(瑞山)출생으로 주소부정한 김종렬(金鍾烈)(二○)은사일오후두시 황금정 이정목 일백 삼십사번지 가등세치(加藤洗治) 점방압해서 훔처가지고 다라낫다 붓들니고

▲하왕십리(下往十里)오백칠십오번지 리건동(李建童)(二○)은화원정(花園町)『마루이』자전차상점에서창신동(昌信洞)사백사십칠번지 곽원상(郭源相)(二○)은 신당리(新堂里) 십삼번지 림준화(林俊華)의 집에서 각각자전차 한대식을 훔처가지고 타고도라 단니다 붓들녓다

二十餘圓窃盜 典當舖行被逮

사일오후다섯시 시외신당리(新堂里)김영자(金永子)전당포에 수상한청년이 의복보재기를 가지고 드러가는것을본 동대문서원은 즉시그를 붓들어 심문해본결과 그는본적을 충남공주읍 상반정(公州邑常盤町)에두고일정한 주소가 업시방황하는 하시만(河時萬)(二三)으로 지난 구월말에 상경한이래로 영등포(永登浦)와 룡산(龍山)일대를 도라단이며 복귀금속류등을 절도으로 전후 십여차에약이천원어치 물품을 도적질한것으로 이날도 장물을 가지고전당잡히려 가다가 붓들닌 것이라한다

酷寒의窮民爲한 年◇末◇同◇情◇週◇間

동정 주머니 칠만개를 배부

京城社會課에서準備에奔忙

경성부의 연말동정주간(年末同情週間)도 가까워오는데 사회과에서는 금년에는 동정주머니를 칠만개를 준비하리라한다 이동정주머니를 내노흘만한 주민은 부내전호구에서 세궁민과 외국인을 제하고 륙만구천륙백오호인데 동정을 바들사람은 삼천칠백명가량이라한다 지난해 동정주간에는 사천삼백원이 모엿는데 금번에는 륙칠천원을 돌파할것으로 예상하고잇다 추이를당하여 오히려 먹고입을것이 업서 떨고잇는이를위하여 만흔 동정이 잇기를 바라고잇다

年末三日間 臨時急行運轉

關釜連絡船도增配

년말 년초의 휴가를 리용하야 만주로부터 일본내지로 귀성하는려객이 매년증가하야 금년에는 다시격증할것 가틈으로 철도국에서는 이들 귀성객을 위하야례년 철도국에서는 경부간 급행렬차를 이회식 증가해오든바 금년부터는 오는 이십팔일부터 삼십일까지 삼일간에 매일두번식 봉천(奉天)에서 부산(釜山)까지 직통하는 침대 식당차를 련락시켜 림시급행렬차를 운전하기로 되야 지금『따이야』편성에대하야 만철과 교섭중이든바 근일중에 결정을보리라한다

이림시렬차는 현재의『히까리』호에 압서서 부산에 직통하야 관부련락선(關釜連絡船)에 접속하는것으로 련락도 철도성의 희생에의하야 대형우수선(大型優秀船)을 증배(增配)하야 종래의 려객홍수를 완화 하기로 되얏다 따라서 만주방면에서 일본내지로 려행하는 려객은 조선을 경유하는것이 시간 경제상 대단히 유리할것으로 철도국의 년말서ー비스는 처음이니 만치크게기대된다고한다

金容珪氏美擧

【牙山】충남아산군 음봉면장(牙山郡陰峰面長) 김용규(金容珪)씨는 원래자선심이 풍부하던바 자긔 소유토지가 동군염치면와우리(鹽峙面臥牛里)에 오십여두락이 잇는데 금년한재로인하여 전부 만농이되엿슴으로 일반소작인에게 소작료 이십여석을 밧지안니하엿다는바 씨의 특별한 미거를 충송들이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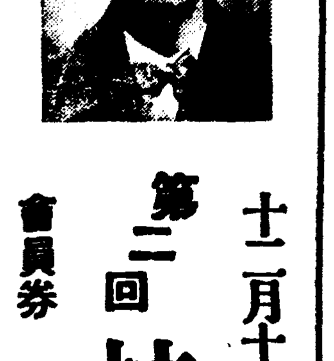
승냥이로알고 老樵夫에發砲

【城津】지난 삼일에 성진군학성면창현동 최창극(崔昌極)(五九)은 가세가 극빈하야 이추운동삼에도 산에 나무를 하려 갓다가 불행히 총에마자 너머진것을 근처동리 사람들의 주선으로 성진 김성우의원(金聲宇醫院)에 입원하고 옹탄수당을 가하야 흉부이상에서 뭇칠 삼십여개를 빼여내엇다는데생명이 매우 위태하다고한다 이에 그지상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가해자는성진『마네싸이토』공장 직공『가지하라』(梶原)로 그가엽총을가지고 산양을 갓다가 산에서나무를 하고잇는 전기 최씨를승냥인줄 알고 발사하야 그와가튼 사고를 이르키엿다는데 가해자는 방금성진서에 인치취조중이라고한다

汽船內에서 玉童子分娩

仁川港內의慶事

【仁川】배안에서 옥동자를분만한것이잇다 인천부화정(花町)이정목십팔번지 박씨(朴氏)(二三)는 충남천정에 단녀오든날 지난삼일오전사시 선창(仙掌)을떠나오든도중 인천항구내에이르자 동기선주길환(住吉丸)안에서 옥동자를분만하엿다 동기선주인 전기선회사에서는 창립이래 처음되는경사이라하야 모자의건강을위하야 금일봉을기증하며 축하연회까지개최하엿다한다



十二月十二日 午後七時半 本社大講堂에서

第二回 桂貞植氏提琴獨奏會

會員券 一圓 一般 一圓 學生 六十錢 主催 朝鮮日報社

滿洲土地經營엔 大使館과協議必要

朝鮮人土地所有制限說은誤傳

外事課의調査로判明

만주국에서는 조선인의 토지상조(商租)에 대하야 농토는 십조(町租)에 대하야 시가지의 토지는 입오정보이내로 제한한다는 말이전하야 재만 조선인은물론 조선내의 만주진출계획자도 큰공황을 이르키고잇는바 최근에 총독부 외사과에 도착한 확보에 의하면 이것은 전연 사실이 오되야 전파된것이고 사실는다욱과갓다한다

즉 만주국에서는 시가지 토지 대자본에 의한 독점과 농토의 대지주에 의한 독점을방지하는 의미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을 통하야 토지의 상조에 잇서서는 시가지의 토지 상조는 일천평이상이될때에 또농토는 십오정보이상이될때에는 대사관에 미리협의하야 매수하도록 규정이되어잇는것이고 절대적으로 이상과가튼 제한을한것은아니라한다 그럼으로 농촌이나 도회지에잇서 토지매수를할때에는 미리대사관과 협의함이 필요하다한다

貨物車自働車 小兒三重衝突

사일오후 령시반길야정(吉野町)전차정류장 압길에서 하물자동차와 택시와통행인이 한거번에 부다처 일시대혼잡을 이루어섯다 시내황금정 사정목이백이십번지『다루마택시』소유의 자동차가 전기장소에 이르럿슬때 정거하라 할찌음에 뒤로부터 룡산경정(京町)동아공업회사(東亞工業會社)하물자동차를운전수파로행(波魯行)(二○)이 운전하고 속력을내여달려와 전긔 택시를 압설녀고 바른편으로 돌든차에 때마침다름질하야 길을건너가든 어린애가잇서 자동차와 하물자동차와 어린애가 한거번에 충돌되야 량편자동차에 약간의 피해가잇섯고 어린애는 삼판통(三坂通)사십팔번지 야촌수일랑(野村綱一郞)으로 약일주일치료의 타박상을바덧다한다

金品을强奪 五名을拉去

臨江縣士兵의被害

【咸興】사일 함남도경찰부에 도달한 정보에 의하면 림강현 팔도구 사십리평(八道溝四十里坪)에 잠재하고잇던 토병 상희국(常喜國)의 일대 삼십명은 작이일밤 오후여섯시경 십삼도구 서강성(十三道溝西岡城)에와서동지주민리가선(李家鮮)방에서 휴게하고잇든 동행인왕옥산(王玉山)(四一)외삼명의 신체를수색하고 현금팔십사원여를 강탈한후 동사명을 무수란타하여 빈사의중상을입혓다 그리고 토병아오영(亞五榮)의일단은 이일십사도구차더리(十四道溝車德里)로올마서 그곳동포송봉륙(宋鳳六)등오명을 랍거한동시 랍거된사람들의몸갑으로 현금일천팔백여원과 방한용내의등을 제공하라고 엄명하고도라갓다

李東鮮等의七名 平穩히審理進行

間共控訴審第三日

간도공산당 공소 공판의 제삼일＝오일오전 열한시십오분 전일대로 경성복심법원 제이호법정에서 피고 원용학(元容學)、리동선(李東鮮)、김성손(金成孫)、로창호(盧昌浩)、차병철(車炳喆)、안응손(安應孫)、류태순(劉泰順)의 사형피고등 일곱명을 출정식혀 사건을담임한 적(荻)재판장은 리동선으로부터 심리를 시작하엿다 내용은 여전히 방청금지이엇다 평온하게 심리를하다가 동열두시십오분 일단 휴정을하고 동오후한시부터 다시 개정하야 리동선의 심리를 계속하엿다

神社參拜만은안코 東向拜禮로于先落着

四日第二皇子御命名式에

平南學務局의指示로

【平壤支局電話】장로파 예수교관계학교의 신사불참배문제가해결되지못하고 잇는때에 제이황자어명명식에 각학교생도아동이괴 평양에서 문제되는 숭실(崇實)중학등은 어떠케될것인가 하고주목되고잇섯는데 이날아츰 도학무로부터 시학관이 학교에까지 나와서 학교당국자에 대하야『신사참배는 안더래도 동편을향하야 만세를 부르고 최경례를 하도록하라』고하야 숭실중학교에서도 신사에 참배하는것과는 다르다는의미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엿다 그러나 이것을 신사참배문제가락착이 되엇다고 할수는업는것이라 학교당국자들도 보고잇거니와 학무당국에서도 그러케생각하고 잇는모양이다

米豆失敗코쓰리질

사일오후아홉시반경에 시내인의동(仁義洞)부근에서 수상한남자 한명을 종로서(鍾路署)원이 검거하여다가 취조한결과 그는청주읍(淸州邑)에 사는 김회수(金會奎)(二一)라는 사람으로 고향에서는 상당한행세를하든사람이엇스나 약한달전에 상경하야 고만미두(米豆)에빠저서가지고온돈을 다이러버린후 시내각백화점에서 절도를하기시작하야 이를전당잡혀먹더든것으로 그피해가상당히만타고한다

仲介料橫領逃走

충남홍성군광천면옹암리(洪城郡廣川面甕岩里) 곡물중개업안종규(安鍾奎)(三二)는 지난십일월 이십일에 그동리정미업자 상전민지조(上田民之助)에게 콩과 벼를중개하여준다고 현금 일백오십원과 이십구일에 칠백원짜리 소절수를 바더가지고 어데로 자취를 감추엇슴으로 소관 홍성경찰서에서는 린근각경찰서에 수배하는일방 그의행방을 엄탐중이라

家庭不和로 疑問의自殺

【新義州】평북룡천군부라면운룡동(龍川郡府羅面雲龍洞) 강시태(姜時泰)의 처김씨(金氏)(三四)는 가정불화로 인하야 지난삼십일 오후열한시경 자긔집에서"양잿물"을먹고 자살하엿다는신고에 당지주재소원이 의사를 동반하고 조사를 하여스나 죽은원인이 불명할뿐더러 곤봉에 마즌형적이 잇슴으로 엄중조사를한바 자살하기전날밤에 부부싸홈을하엿다는데 혹은 남편이 때려죽인것이 아닌가하야 목하강을인치하여 엄중취조중이라한다

流行感冒猖獗

【奉化】해마다 겨겨오는 류행감긔는 금년에도 벌서부터 어느 촌락을물론하고 어른 아이할것업시 감긔에걸이지 안흔사람이업다하니 일반은 한사람의 환자라도 압흐로 느러갈것을두려워하는중이나 금년은 특히일긔가 순조롭지못하야 례년보다 더욱 심한것갓다한다

"카렌다"를미끼삼아 注文先金詐欺

시내 각상점에 출몰하며

鍾路警察에서檢擧

새해를 압두고『카렌다ー』주문을 미끼로 게약금을 사긔한사건이 잇다 사일오후열시반부터 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내자동(內資洞)륙십오번지 송형오(宋亨五)(假名)(三六)를 데려다가 사긔혐의로 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인데 그는 전부터 그와친분이 잇든 통동(通洞) 왕일(旺一)『카렌다ー』상회의 고원홍모(洪某)에게서 『카렌다ー』주문용지한권을 빌려가지고 대양(大洋)자동차부、조선금물상점(朝鮮金物商店) 가미(加味)상점등 오륙처에서『카렌다ー』수백개식 주문을맛흔후 게약금으로 십원내지 이십원식바더서 횡령하고 물건은 긔한이 되여도 안가저다준 혐의라고한다

運動競技

氷上의三選手 奉天到着 첫練習開始

【奉天支局發電】世界올림픽氷上代表 金正淵、李聖德、張祐植選手一行은 今五日午前六時四十分 當地各團體와 및本報奉天支局員들의 出迎裡에 元氣旺盛하게到着하야 滿鐵南社員俱樂部에서行李를 풀고 午後부터 國際스케ー트링크에서 첫練習을開始하엿다

平壤서大歡迎 올림픽代表마저 平高서五百圓寄進

【平壤】世界冬季올림픽制覇를目標로 戰地渡淸을 向하여가는우리 至寶金正淵、李聖德、張祐植의 三君은 一行四名과가티 三日午前七時三十三分着列車로 平壤에 途中下車하엿섯는데 驛頭에는 關西體育會 幹部를 筆頭로 金正淵君을 나은 平壤高普生徒、同窓會員等 百餘名의 出迎이잇섯다 暫時東陽旅館에서休憩한後 平壤高普에서 金君의講演이잇섯고 生徒 職員及同窓會에서 應援費로보내는 五百圓을 感激에넘치어밧앗다 午後一時부터 和信食堂特別室에서 關西體育會主催午餐會에參席하여 十二分의懇談을披瀝한後 市內를見學하고 午後四時부터高普同窓會에서 開催한 晩餐會에 出席하여 主客이歡樂을 다햇다 午後七時五十七分發 急行列車에 실니어 奉天을 向햇는데 驛頭에는 關西體育會長 曺晩植氏 高普同窓會長 金翼鼎氏等을 비롯하여 各新聞社關係者 高普職員 生徒等 數百名의 歡送이 잇섯는데 金正淵君의 伯丈 金翼鎭氏를 비롯하여 家族全部도 一行을 精誠것 餞送한것이 눈에띄웟다 이리하여『꼭이기고 오겟습니다』하는 決心을 宣言하면서 萬歲聲裡에 北向햇다

마라손走路誤算 責任者十名辭職

東海陸上競技協會에서는 二日夜에 第四回臨時代表委員會를열고 名古屋、小牧田間『마라손·코ー스』三千三百二十三米突不足의誤算問題를 討議한結果 責任者인現幹事十名의辭職을 보게되엿다는바 이誤算問題는 지난七月二十一日 名古屋에서擧行된 日本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一回東西對抗陸上競技大會『마라손·레ー스』에잇서 關西選手楠好藏選手가 二時間二十六分五十一秒라는 驚異的 記錄으로써 優勝하엿스나 其後走路를 調査한바에 依하면 三千三百二十三米突이 不足되여잇다는것이 發見되엿스므로 東海陸上競技協會가 責任을지게되엿든것이라한다

中央基靑柔道部 定期昇段進級試合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柔道部에서는 來七日 午後七時부터 定期昇段進級試合을 同館柔道場에서 열터이라는바 一般의 觀覽을 歡迎한다고한다

英獨國際蹴球戰經過

【로레남四日發聯合】英國對獨逸國際蹴球戰은 四日『로레남』에서열린바 結局四對零으로 英國快勝하엿다

英國 4 (3:0 / 1:0) 0 獨逸

冬期올림픽競技場 各候補地의猛運動

【東京電話聯合】一九四○年의第十二回 世界올림픽大會를 日本에서 開催할것을 假定하고 冬期올림픽競技場을 各히 自己地方에 設置하도록 猛運動을 이르키고잇는데 그中에서도 有力한 候補地는 北海道이고 다음이 日光이며 長野縣等 數處의 候補地인데 最後的決定은 日本體育協會에잇는 特別委員會의實地踏査에 依하기로되엿다 한다

總督府內卓球戰

朝鮮總督府 卓球部에서는 今年度 同部選手權大會를 第二食堂에서 行할터이라는데 矢野部長盃爭奪戰(十一名參加)은 來四、五、六日 午後四時부터이며 卓球部盃爭奪戰(八十餘名參加)은 七日 午後一時부터이라한다

朝鮮陸上五傑(4)

+1935年度+ ◇男子部◇

◇四百米競走
1、金鍾元 五○秒九 (崇專)
2、金仁植 五一秒六 (遞信)
3、安永載 五三秒○ (아俱)
4、吳相煥 五三秒七 (慶北)
5、吳壽泳 五四秒四 (養正)

◇八百米競走
1、金鍾漢 二分二秒一 (慶南)
2、李敏弘 二分三秒九 (二商)
3、鄭右鎔 二分三秒七 (慶北)
4、孫基禎 二分四秒九 (養正)
5、李正根 二分五秒 (朝鐵)

◇千五百米競走
1、李正根 四分五秒○ (朝鐵)
2、柳長春 四分五秒八 (遞信)
3、池永龍 四分六秒三 (平商)
4、白圭福 四分七秒○ (朝鐵)
5、崔俊根 四分七秒六 (同上)

올림픽·뉴ー스 宿泊料引上禁止令

冬季"올림픽"도 멧달남지안어잇는關係上 大會競技場所在地인『바바리아』州政府에서는『가르밋슈·바르텐키르헨』의兩村을 中心으로 附近『월하임』及『르이루스』地方一帶의『호텔』또는 下宿屋等에對하야 一月十五日부터二月二十日까지『宿泊料서ー비스』料의 引上禁止令을 發布하야選手及 一般觀覽客들을 밋끼로 不當한 宿泊料를 밧는 不德호텔業者를 徹底히 取締케되여 旅館室內에는 規定의 宿泊料를明記하기로 되여잇스며 萬若上記引上禁止令에 違反한者는 科料에 處한다는것이다 이法令은 各方面으로부터 好評을밧고잇다한다

天氣豫報

天氣概況 低氣壓은 시베리아方面에잇고 高氣壓은 揚子江流域과 日本本州의 南東海上으로퍼저잇는데 그勢力은强하다 西日本及朝鮮도氣壓이 多少놉하가고 琉球諸島에는 三個의低氣壓이잇다 滿洲及北朝鮮은맑고中部以南及日本內地는 大槪흐리고 朝鮮海峽과 琉球는 小雨가잇고 半島의氣溫은 昨朝보다 五度內外가 놉하젓고 日氣는좋마듯하다

豫報 ▲今夜京城地方＝全般的으로 맑엇다흐렷다한다 京畿道全區＝同右 ▲明日도同上

昨日氣溫 最高四度七 最低零下三度七
今朝最低 零度四
今日正午 四度七

?五十版突破 !!百萬部賣盡
朝鮮에서普通學校敎科書다음으로 第一만히發行되는夜學敎科書!

夜學敎科書

이것은百万更生文盲打破의소리가 三千里半島坊坊谷谷에놉하이러가장適切한敎科書로이미天下公認이잇서各夜學、書堂、講習所에서는거의全部가指定敎科書로採用하는簡易學校의科外讀本에適當하다

全朝鮮農村夜學·書堂 講習所總指定敎科書
勞働讀本 1 十五錢 2 二十錢 3 二十錢 國語初步 漢文初步
勞働算術 上 十五錢 下 十五錢 農業初步 農月令歌
勞働書翰 全 十五錢

더욱이近日에는各郡廳、面事務所 金融組合、農村振興會、大農場、大工場과在外同胞까지大量注文을 모르고는살수업는이世上에한달동안이면누구라도글을깨치게되는이 夜學叢書는實로朝鮮의寶書다 三千里半島江山에朝鮮사람치고는 한사람도文盲이업슬最後一刻까지

誠祝夜學發展 伏乞本書採用

朝鮮基靑聯合會 農村事業部 發行

農村實業叢書

純朝鮮文으로써 諺文만아시는이면아모리두메農村사람이라도읽어 가지고自由自在로應用할수잇는冊이니更生하랴는農村에絶對必要!
▲作物病理篇 ◇每篇十二錢
▲養鷄篇 ▲養蠶篇 ▲果樹篇 ▲蔬菜篇
▲畜産篇 ▲土壤篇 ▲肥料篇 ▲害虫篇

朝鮮常識普及編纂 青年常識叢書

普通學校卒業하고上級學校못가는 青少年의獨學必讀할良書!
通信講義錄저럼비싸月謝도안들고 內容도極히平易하야를름이힘닷는 대로한卷二卷사읽으면中學課程과 處世常識을아울러修得할수잇다
▲朝鮮歷史 ▲政治篇 ▲朝鮮地理 ▲經濟篇 ▲世界地理 ▲法律篇 ▲東洋歷史 ▲社會學 ▲西洋歷史 ▲哲學篇 ▲朝鮮文法 ▲商業學 ▲新經學法 ▲物理學 ▲人體生理 ▲化學篇 ▲家庭衛生 ▲大衆辭典 送料每冊二錢

黃義敦·申瑩澈兩先生 共著
新體文學生書翰
定價一圓 先金送料 十六錢

在來朝鮮에서出版되든新舊尺牘百餘種中에서아직이만큼잘된것이업는 一般靑少年과男女學生에게現代式模範을보힌唯一의書翰文!

★開館十五週年及讀書紀念特別大賣出도잇스니규定을請求하시요
新聞名記入圖書目錄請求無代進呈

文化書館
京城寬勳洞 振替京城一四四六番

金 白 福 銀 金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電話下谷(83) ○九五九番 ○九九二番 ○二八五番 ○○八八番
振替東京六八八番 電略(クフシイウケト)
出張所 平壤府旭町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查試驗問題集等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三○番 (規則書卽送)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三二一番)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당장에 숨이끗칠듯한괴로음
천식
완고한기침에
놀라운新創見劑

「スペロイン」(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注射以上의頓服藥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頓服하면 峻烈한藥効作用을나타내어 喘息의病毒을 巧妙히小便으로빼는 强心性의貴重한 化學藥입니다.
◇決코一時的속임藥은아니오니 아모리괴로운천식의 發作도『스페로인』의頓服으로아조쉽게나어니즈는듯이됩니다.
◇완고한기침이끗치고담이잘빠지고 呼吸이잘되며 心臟이 편하고安眠이잘됩니다
◇身體에 爽快한溫暖感을주어서 氣分이非常히조하지며
◇이와가티 有効하나모루히네나 아드레나린其他의痲劑藥의問題가안임으로 아모리連續하야 服用하야도 人體에絶對로害가업서 念慮될것이업습니다.
◇繼續服用하야 두면喘息의發作이적어지어드대여 喘息이나지안토록 튼튼한體質이됩니다
適用症 『천식』氣管支加答兒、氣管支擴張、완고한기침、百日咳、感冒、神經痛、偏頭痛其他기침의諸症
價藥 三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有名藥店에有함) 萬一品切時는直接으로 送料前金에 無料代金引換五十錢加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東平野町三(電車上六) 電話南四○一五番・振替大阪七五一四番
特約店 京城南大門通新井藥房 同本町四丁目木村藥房 釜山辨天町大衆田藥房 平壤大和町森田藥店 大邱本町田藥房

세찬은 보내서 고맙게여길것을

섯부른사치품보다실용품이조타

"그러나볼품잇서야"

년말이 되오면 서로서로 세찬을 주고 밧습니다。그것이 물론 번거로운 일이요 때로는 부질업는 일이오나 이미 한 습관이 되야 졸연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야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든지 고맙고 감사한 사이에 해가 밧귀는 것을 긔회삼아 정을 표하는 것즘 무엇이 나뿌오릿가? 정도를 넘어서 과하게 되는때 첨이 되고 뢰물이 되야 폐해가 생긴다는 것 아니오니까? 과연 그럿습니다。그저 정으로 주고 정으로 밧는데는 아모런 폐해도 업습니다。그러나 아모리 정이라도 물건을 주고 밧는이상 물건을 끌라야 합니다。그것을 잘못 끌라서는 모처럼 보이려든 정이 감추어 지고 말게 됩니다

첫재 바듬사람이 필요할까안할까를 생각해 보아야합니다。가령 그사람이 신식가정을 차리고 사는 이라면 구식살림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서 무슨소용이잇스며 그반대로 그사람이 구식가정을 차리고 사는 이라면 신식살림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서 무슨 소용이잇습니까?

둘째 바듬사람이

특별히조하하고

질기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합니다。가령 술을 조하하는사람에게는 조흔술이라든 술제구가 반갑게 바터질 것이요 담배를 조하하는 사람에게는 조흔 담배라든지 담배ㅅ제구가 반갑게 바터질것이 아니겟습니까?

×

셋재로는 보내는 물품 그자체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아모리 조흔것이 정히갑이 나가고 희한한 것이 아닌 이상 얼마만큼

부뀌가업서서

는 재미가 업습니다。그러니까 이십원짜리 손목시계하나보담은 십원짜리 괘종하나가 더 생색이 나게 됩니다。그야 어떠한 경우에 든지 꼭 다그러타고야 말하지 못 하겟지요만은 대개로 보아서 그 물품의 부뀌가 적지아니 밧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지 안는가 생각합니다。

부뀌가 조그마것은 그만큼 초라해 보입니다。될수잇는대로부뀌가 상당한 것을고르서야 합니다。

넷재로

모처럼보내는데

이미 남이 만히 한 그런 물품을 보내서는 도리어 싱겁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만히 하지 안 햇슬것 아조 히귀한 것을 보내야 생색이 한층 더 도다 납니다。

다섯재로 아모리 세찬이라도 한번 훅다 써서 업서질 것을 보내서는 그역시 재미적지 안습니까? 두고두고 뭇ㅅ것 좀처럼 업새지 안 할것을 보내야만 생색이 더 하리라고 압니다。

여섯재로는 요사이

선사에상품권이

류행하야 세찬에도 상품권이 만허집니다만 그것은 결국 액면문제입니다 이삼십원이상 될때에야 상품을 보내서 자긔가 필요한대로 또자긔가 조하하고 질기는대로 사게 하는것이 조촐습니까 만흔 그이하의 금액은 차라리다른물품으로 보내는이만큼 생색이나지안습니다。그뿐이 아니라그상품권으로 다른물건을 사가지고도 누가 세찬한것이라고는 얼른 생각나지 안케됩니다。그점으로 보아서도 차라리 즉접물품으로 사서 주는이만갓지못합니다。

妊婦(임부)의異常(이상)

이런때는속히병원에

임신중에는 다릴때와달라 더 한칭건강에대해서 주의하지안어서 안될것이지만 특히 다음에 적는일이 생기거든 얼른전문의사를 차저가서서 진찰을밧도록하십시요

一、피가 만히나올때는물론、조금이라도 아래로피가석겨나올때

二、몸이웬일인지 찌뿌둣하고 끌치가압흘때

三、머리와수족이 푸석푸석하고 국부가 부엇슬때

四、오좀누는분량이 별안간주럿슬때

五、아래로 흐르는것이 별안간 만어젓슬때

六、정맥(靜脈)즉푸른심ㅅ줄이유난스리 섯슬때

七、밤에 잠잘때 유난스리 잠이안오는경우

八、젓(乳房)에 멍우리가섯슬때

九、웬일인지 맥시풀리고、멍할때

十、구미가 갈안날때

十一、속이메시껍고 토하는일이잇슬때

十二、배가압흘때

十三、손발이 저리거나 마비가될때

十四、몸을 조곰만놀려도 가슴이두근거릴때

十五、몸에열기가잇슬때

家庭醫學

발더듬는데

問 저는십칠세의남자인데 이년전부터 말을더듬습니다。말을 할적마다 말이맥히고 말이나오지안습니다。그래서숭이답답합니다。우리동리에 그러한사람이잇서 숭을내드니 그후부터 말을 더듬어서 각처약국과 병원에가서물어보아도 몰은다고합니다。

답 말더듬는것은 한습관이니 가정신치료로 교정할수잇습니다 전문으로 이교정을하는곳이 잇스니 차저가서 치료를밧도록 하십시오 (大學病院小川外科金晟鎭)

귀밋헤점

問 저는이십세되는녀자이온대 귀에 경은점이 도작마치큰것이 잇서 변변히커집니다 이것을뗄수잇슬가요 그수술방법과 그전문의사로 어데가조흔가 하교하여주시요 (愛讀者)

답 색소모반(色素母斑)인듯합니다 더커지기전에 곳수술을밧도록하십시오 수술방법은 극히 간단하야 그주위를 도려내면고만입니다 외과병원이면 아모데나 다될수잇스오니 곳차저가보십시오(大學病院小川外科金晟鎭)

전긔풍로

돈만히들고안들고 쓰기에달렷다

료금적게무는비결?

전긔를 써서 모든 음식을맨든다면 편하기야 좀 편합니다 까만은 원수의 전긔료금이비싸서 좀처럼 쓰지를 못합니다 그저 원낙 편리해 노호니까 웬만한 대에서는 주선을 매노코 급한때만이라도사용합하시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쓸탓에 달려 료금을 적게 드릴수도 잇고 만히 드릴수도 잇습니다 긔사용의 비결을 몃가지 아리켜 드리오리다

(一) 시위치를 끈후에라도전긔난로는 얼른 식지안코 그대로 잇습니다 그열을 리용하야 다른 무엇을 한다면그만큼 리가 됩니다

(二) 전긔난로에 불을 피워노코 사용하는 중에라도 갓금갓금 시위치를 껏다 도로 ○니다 그것은 결국바로전에 말한 나머지의 열을 잘 리용하자는 것입니다

(三) 남비나 솟이나 밋바닥이 편편하야 난로에 가서딱 닷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중에도 검은 빗으로 칠한 것이 더 조습니다

(四) 남비나 솟이나 거죽에 물ㅅ긔가 업도록 말끔하게 씻어 가지고 올려 노하야 합니다。

映畵 白夜

도스토엡스키原作

모스쿠바·키노룸비나-트作品

싸베트영화를 접할기회가우리에게 극히드물다그러나 현대의싸베트 영화가 엄마나무섭게 발달되는지 량으로몰라도 집에잇서서 미국영화 구라파영화를 벌서 저편으로 밀치고잇는감이잇다『인생안내』(人生案內)이것을 본사람은 벌서 그점을느꼇슬것이지만 이『백야』야말로 그후의걸작이라한다 문호『도스토엡스키-』의소설이라 유명하다는것보다 그소설을 영화화한데잇서서 화면、음악 그외모든것이 그소설이상의 예술적효과를 나타내지 나아햇슬까? 엇잿든 외국에서는 이영화에대한 평이조흐니만큼 우리는 벌서부터 조급해진다

監督 G로샤-리스토로예바
脚色 O로샤-리
撮影 D메리토만
作曲 D카바레스키-

童詩 청개구리나라

李龜祚 ⑤

청개구리나라에서 본 용울풍다던것이 도리혀 뒤집어 쓸줄이야 까막하게 몰랏던것입니다。쓰대야 할지 달대야 할지…… 욕되기는 마찬가질지 모르나、속살잇는욕 깁분욕……한편으로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개구리와 나와의 문답이 퍽우나 길지만 죄 고대로 옴겨적어야 여러분아메 잘못햇노라는 표적이 될줄 압니다 웨? 적어도 나 한사람을보고 사람나라놈은 다 그러려니……할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나는 한울은 커녕 한자도 안쓰기로 합니다。웨? 이글을 보아주시는 여러분도 내가 당한 그것과가티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마그막까지를 못읽어주실 염여가 잇기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적엇던지 살짝 말머리를 돌립되도 생각키지 안헛던모양입니다。

『이 할죽죽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손수건을 빼서 목아지꺼정 닥게시리 땀이 집식나와잇섯읍니다。

개구리는 우물속 자기나라의 것은 깨알만치도 모른게 업습니다。이끼가 업마고 모래알이 몃개고 하로에 물이몃동에가 나가고 지난달에 어쨋고 지낸정초에 고사밥이몃그릇이 들어왓고……자세하기가 끗이 업습니다。더군다나 신통한것은 우물바 사람동리에 드레박이 ××개라고까지 알고잇는것입니다。지내일 지금일을한끄지에 꿰논듯이 계뚤어 알고잇습니다。

『그만 잡시다』

『제얘기만 늘어노아서 미안합니다』

파란 이끼요에 누으니 정신만 뚝독해올 따름이지 조름이 올것갓지가 안습니다。눈감고 오늘하룻일을 생각하니 이붉깃보기가 부끄러워 옵니다 재 역사하나 번번히 모르면서도 미국이 어떠니 세계가 어떠니—아는체、잘난체 장한체……조고 만한 개구리의쌔근대는 숨소리를 들을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서 백일수가 업습니다。

『에라!』

한잠이 든 개구러의 이불을 여며준다음 모자와 바랑을차저가지고 두번채의 밤도망을 치기로합니다。(끗)

꿋으로 면말습

우물속나라를 나온 그밤으로 되지퍼 참개구리나라로 갓습니다。청개구리나라와 우물속나라는 마음들이 착한데 별다르게 참개구리나라만 나쁘갓지가 안헛기때문입니다 그나라 시굴을 도라댕기다가 과연 형제개고리의 아름다운 미담(美談)을 들엇습니다。그러나 처음 대궐에 갓던얘기를 썻스므로 한나라얘기가 겹치면 재미가 업슬까해서 이것만흔 다른 기회(機會)로 밀웁니다。

두꺼비나라와 맹꽁이나라는찻다찻다 종시 찻지를 못햇습니다。이 두나라 소식까지말슴드리려고 햇섯는데 여간섭섭지가 안습니다 원낙 무덥고 길엽시댕기는 여행이지만 신문사나잡지사가 시언한 수박이나 갓다바치면서 몸시 권한다면 한번더 떠나게 될넌도지 모르겟습니다。

梨花專門學校主催

第四回"演劇의밤" 六日밤●同校大講堂에서

梨花女子專門學校에서는 第四回『演劇의밤』을 明六日밤七時 同校大講堂에서 열기로 되엇는데 演題는메-텔링크의作인『바랑새』(曾希醇譯)이라한다 (全三幕六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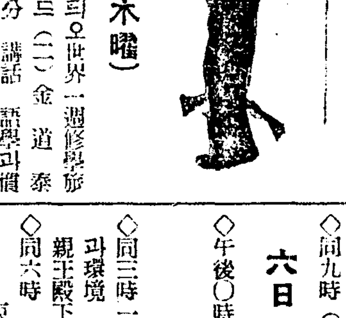
汽車時間
往路 京城發 後六時三十三分
歸路 新村發 後九時三十三分

女性界消息

▲李次璨氏(피아니스트·現職培花女高教員) 세부란스病院에入院中이든바 今四日午前六時四十分別世

백공찬 ⑪

金湘旭



五日 (木曜)

◇午後六時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폴-렌드(二) 金道泰
◇同六時一五分 講話 語學과慣用法 李競魯
親王殿下御誕生奉祝(第二日)
◇同七時三〇分 奉祝講演 親王殿下御誕生을奉祝하야 總督府事務官 金大羽
◇同八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編 盧錦桃 金鳳仙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三〇分 時調外 一、詩調 二、男唱지름 三、遊山歌 四、船遊歌 五、제비가 趙牧丹 李竹葉
◇同九時(東)管絃樂 新交響樂團

六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關山戎馬外 崔貞子 吳飛燕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兒童과環境 趙圻烘
◇同六時(東)管絃樂 東京라듸오·오케스트라
親王殿下御誕生奉祝放送第三日
◇同六時二五分 講演 暴風警報의改正에對하야 趙永根
◇同七時三〇分 奉祝講演(AK) 總理大臣 岡田啓介 譯講 田中德太郎
◇同八時 民謠와演談─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一、流行歌(가)哀想의썰매 (나)故鄕의處女를 崔南鏞 二、演談 感孝代命 玄哲 三、新民謠(가)落花三千 (나)콧노래 盧碧花
◇同九時 音律 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會員

七日 (土曜)

◇午後零時五分 (名)管絃樂 一、序曲『東洋의女王』…산사노스作曲 二、組曲『에지프치안 바레-』…루이지니作曲 三、序曲『루스란과루도미라』…그린카作曲 名古屋交響樂團 指揮 早川彌左衛門
◇同三時一五分 常識講話 遺傳과結婚 李在鶴
◇同六時 童謠齊唱 一、아침일곱시 二、가을 三、돌감나무 四、그리운고향 五、전차 六、기럭이 七、깜빡이별 八、대장간 九、잠자는물네방아 金蘭會 伴奏 兪富全 指揮 玄雲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高永煥
◇同七時三〇分 趣味講座 科學의目標 沈亨弼
◇同八時 女聲合唱 一、主를讚揚하라…스마트作曲 二、薔薇꼿이필때……해어作曲 三、印度人의새벽…자메닉作曲 四、오랑캐꼿……렌즈作曲 五、해빗……윤리作曲 梨專글리-클럽 指揮 尹聖德 피아노伴奏 金明子
◇同八時三〇分 俗曲 一、길念佛 二、打鈴 三、山念佛 四、江原道아리랑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락 七、唱夫打鈴 洋琴 崔壽成 奚琴 池龍九 細笛 高載德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三、顧草廬 方應敎 鼓手 韓成俊

曆

十二月六日(金) 十一月建戊子(大)十一日 丙辰·土·鬼·執
●大雪八日(舊月十三日)
●冬至舊二十三日(卄八日)

明夜!野談大會

太平歌手의流行歌應援

DK에서는中繼放送

야담동호회주최、본사학예부후원인 야담대회가 오는륙일밤일곱시경각부터 시내서대문턱에잇는동양극장에서 열린다함은 벌서 여러차례 본면에소개되바이어니와 기다리든 그날짜가 래일로 닥치것이다 이야담대회의인끼가 벌서부터 얼마나놉하잇는지 그것은 새삼스레말할것업지만 당야의 태평레코-드의 비장가수최남용(崔南鏞)군과 로벽화(盧碧花)양의 류행가야말로 금상첨화격이다 뿐만아니라 이번야담은 JODK에서 캐취하야 전국적으로 중계방송하게 되리니 지방에서도 이야담대회의 혜택을 볼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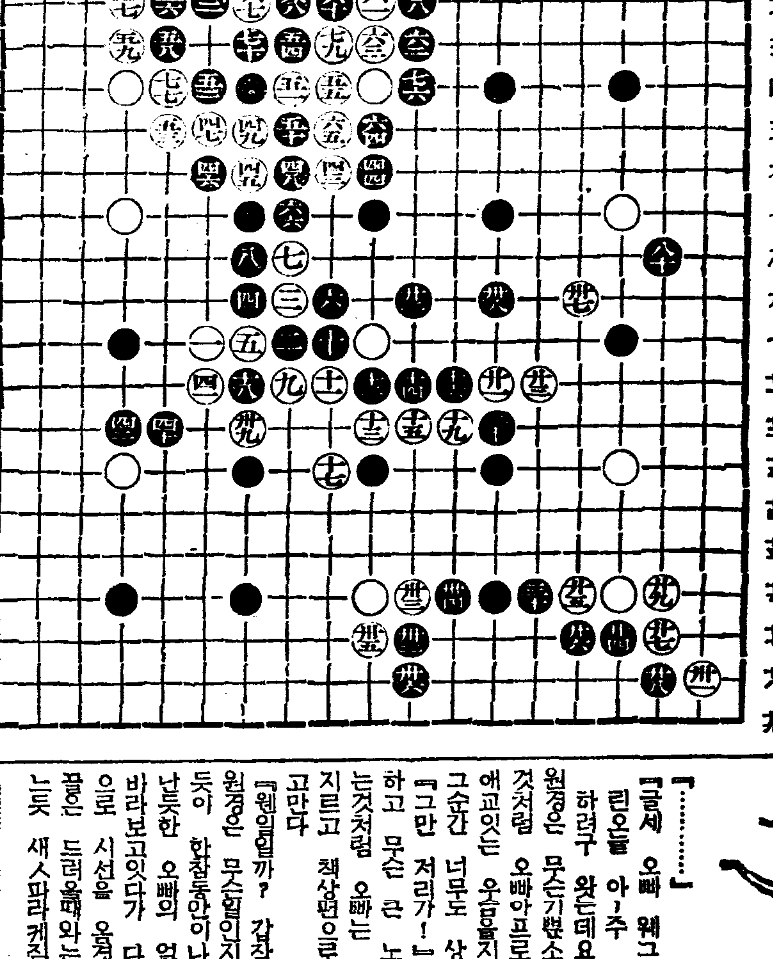
十二月六日밤七時 東洋劇場에서
野談大會
朝鮮日報讀者優待券
一人에 一枚限
優待料金 『上層』大人七十錢을五十錢 小人六十錢을四十錢 『下層』大人五十錢을三十錢 小人四十錢을二十錢

圍碁對局譜 ─5─

本社主催

白 丁奎泰
黑(六段) 李英鎬

●	六五	子의五
○	六六	丑의七
●	六七	寅의二
○	六八	丑의二
●	六九	子의一
○	七〇	寅의三
●	七一	丑의一
○	七二	卯의二
●	七三	寅의一
○	七四	卯의一
●	七五	癸의一
○	七六	壬의四
●	七七	辰의四
○	七八	壬의二
●	七九	子의三
○	八〇	丙의八



◆蔡極文氏評

黑이 寅의 四將區內에잇서 初頭設備에 잘못하얏슴으로 終乃失敗는하엿스나 壬의 二三四로 防禦가 堅固하니 外勢는 自然擴張되다 이로서보면 棄子當先과 小失大得은 恭家之龜鑑이로다 黑이先手로 丙의 八로 斜着함이 要點은 아니나 白의 欠端이 만흠으로 以此補彼할 效果는 瞬間에 發現될을 推想하노라

短篇小說 惡夢【五】

咸大勳 作
夕影 畫

『…………』

『글세 오빠 웨그리서요? 우린오늘 아-주 조흔이야기를 하려구 왓는데요!』

원경은 무슨기뿐소식이나 전할것처럼 오빠아프로 닥어서면서 애교잇는우슴을지웟다 그러나 그순간 너무도 상상이외로

『그만 저리가!』

하고 무슨 큰 노여움이나 잇는것처럼 오빠는 소리를 버럭지르고 책상편으로 휙돌아안고만다

『웬일일까? 갑작스레!』

원경은 무슨힐인지 알수업다는 듯이 한참동안이나 말업시 섯난듯한 오빠의 얼골을 멍하니 바라보고잇다가 다시 경숙이편으로 시선을 옴것다 경숙의얼골은 드러올때와는 딴판으로 어느듯 새ㅅ파라케질려가지고 독긔오른 눈초리로 자긔오빠의얼골을 뚜러질듯이 바라보고 잇다 거긔는 확실히 자긔를 모욕햇다는 불쾌한 빗이 력력히 나타나잇섯다 경숙은 무엇때문에 그리는지 알수업는 이 순간의 긴장된 장면을 어떠케 수습할길이 업다는듯이

『오빠가 뭐 섭난일이 잇나봐』

하고 경숙이 억개를 잡어단기며

『우리 안방으로 드러갈까?』

하는 늉청마즌 말한마듸로 경숙이를 달래가지고 그들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통한 소솜대문편으로 나서고말엇다

그들의 발자최소리가 멀리살어지는것을 기다려 원철은

『맹랑한것!』

하고 경숙이를 증오에타는 마음으로 허공에 그려보앗다。

『무슨승리자나 된것처럼!』

그는또 휘파람치며 원경이와들어오든 경숙이를 허공에 그려노코 그를노려보앗다

『이젠 완전히 자긔것이나 된것가티…』

그는또 경숙이에게대한 무서운 증오의 불길로 그것은 마-치 용광로에 타오르는 불길과도가티 원철의가슴속에 지글지글타오르고잇섯다。

원철은 지금 경숙이가 요몃주일째 너무도 자긔를 무슨무긔로 잡기운 물건처럼 대하는데 커-다란 불쾌감을 늣기게되엇다 그것은 흔이 요즈음 모던처녀들이 자긔가 허락한몸을 북그러워 할줄은 모르고되려그것을 유일한 무긔로 완전히 그사내를 자긔것으로나 맹긴것처럼 대하는 일종 구속적소유감을 늣기는데 대한반동으로 일어나는 증오감인 것이다 원철이도 이런 늣김을 경숙에게서 밧게되엇다 그리하여 최근에와서는 더한층 경숙의 태도에 증오감을 갓게된것이다

요즈음에와서 확실히 원철은 경숙의 그 육감적인 그리고자긔에게대해서 무슨 소유권을가질듯이 대하는태도에 커-다란 증오감을 늣기게되엿다 그런반면에 아-모야욕도 업시오숙순정적편지를 보내는 영자의 그 순수하고 맹목적인 사랑에 다시금 도취하지 안흘수가 업섯다。

『원 내가 미첫지 웨사랑하는 영자를 멀리두구 경숙이와그랫담』

하고 화가동하는듯이 머리를쥐어뜯고나서 원철은 무거운 머리를들려 창넘어로 한참동안 먼 하늘을 바라보고잇섯다 그래도 그는 마음이 가라안지안는지 다시 잘근책상설합을 열어제치고 영자의편지를 끄내들엇다。

『……이것은 제가배운 민요의하나이요 어떠케두 자미가잇섯는지 적어보내오니 한번 읽어나보서요……

오독도기 제기춘향 연자바리고 달도밝은데
내가 노자나 갈가나
둥그레당실 둥그레당실
여도당실 연자바리고
내가 멀리로 갈가나
……』

참 자미가잇서 원철은 그걸 멧번이나 되푸리하며 외우면서 프른물결이 쉴새업시 모래사장에 밀리는 남해고도에잇는 그림운 영자의모양을 생각하고잇섯다。

『그 까암한눈! 햇숙한뺨! 엷은 입술!……』

원철은 미친듯 그가 떠나갈때 주고간 사진을 끄내들고다시 몃번이나 입술에 입을 마초앗다。

상쾌하게발는맛은比할데업시조흔
귀치안흔손질이실증나면꼭이一滴
ラン(란)ラン(란) 洋裝香油

學藝

Adieu 1935

蕭條한 一年의 總決算的序詞 (六)

李軒求

評論界

文壇會合의 實質的問題

文壇的流派와 會合과 또는 文藝家團體에 關하야 몃個의 論題가 問題되여왓다。所謂 캅프解消와 海外文學派 云云도 그中의 하나려니와 文藝家協會는 그中 만히 是非를 일으키엿다 그리고 또 今年과가치 文人의 會合이 座談會의 流行과 함께 그度數가 七八을 헤이게 될만치 만흔때는 別로히 업섯다。이座談會의 大部分이

「巷間」에 出沒하는 여러個 雜誌社의 多分히 政策的行爲를 품은 主催엿다는것을 생각하면 그러케 變質할만한 性質은 못된다하드래도 어쨋든 文人들이 會合에 出席을 납으래지 안흘程度로 社交性을 띄여왓다는것만은 首肯될줄안다。

座談會라고하는것이 한개의 評論的形態를띄인것은 十七世紀佛蘭西의『살롱』이 그嚆矢오 또그代表的役割을 行使하여왓다 그러나오늘의 座談會는 大部分이 問題의 取扱이 一律的인데다가 너무廣汎해서 到底히 活路의그어느새로운 붓잡아살닌다는 意義가 매우 朦朧하다、그런데이러한 會合이 좀더定期的으로자저질수잇다면 이러한 性質의會合을 한個의 組織體로 構成할수도잇는것이다 이런意味에서文壇的體-結合이 可能하여진다 그러나 오늘에 잇어서는

「單純」히 이러한意味 만이아닌文壇全體的結成을促進하랴는 意圖가發生케되엿다

文學 又는文壇이 對社會的活動과 又權威의擁護에서 한團體를組織한다는것은 近代資本主義社會에잇서서는當然한일이다 文筆業이라는것이 한個의職業으로서充分히 成立될수잇는 社會에서는 作家 又는 文筆業者의 經濟的 保障을 爲해서도 이러한 對外的 集團은 絕對必要할것이다 그러나 朝鮮과가튼 特殊地帶에 잇서서는 作家의 生活問題보다도 文學自體를 擁護發展식히랴는데 그重要한 意義가잇서야할것이다。假令 一年間 文學的 活動의 成果에 對한 總批判이라든가 또는 文壇이 對社會的으로 行해야될 여러가지의事業과 集會를 가지는等 이러한 文學的 活動을 爲하야 果然 朝鮮의 文人은 各自가 거기에 最大의 關心을 가지고 直接間接으로 이일에 몸을 맛기라는 誠意와 努力을 가질수잇는가?가 爲先・問題되어야할것이다。이번 朝鮮文壇座談會를 機會로 準備에 着手되엿든 그事實이

「流産」狀態에 빠진것을 單純히 그들準備委員의 責任에만돌닐것이아니요 더나아가 우리各自的要求가 이에反映되는바 너무無力하고 等閑하엿다는 一般的情勢도 여기考慮되어야 할것이다。率直히 [illegible]

體的觀念보담은 獨自的 利己의 利害를 함께 하지안는 그러한 回避的態度에 不平스러운 滿足을 가자하지안는가? 우리는 事實이라 거나 行動이라는 事實이 招致하는 結果的煩鎖로말미암아 스사로 孤立하고 沈默하랴는 消極的否定을 默守하고잇지안는가? 最近 日本內地에서는 오래만에야『펜・클럽』의結成이實現되엿다『文藝懇話會』라는것보담 全然딴結成分子를包含한것은아니로되 그들은 이때까지의 日本文藝家協會라는龐的無爲의 組織에서나아가 새로운實質的發展을 꾀하고잇다는것만은 推測할수잇다。

마일 우리가 文學에對하야가지는情熱과 誠意가 이압호로도 熾烈할수잇다면 좀더實質的인그루프行動이 旺盛하야 單純히社交的會合이아닌 論爭과 討議가 文學의生命을 發見 助長하여야한다 이런

「意味」에서 九人會와 가튼 公然한名稱을 가지지 아니하드래도 徹夜論爭하고도 남는 文學熱이잇서야 할것이 아닌가? 그러나 茶房의魅惑과 映畵의迎合과 아니 그도저도아닌 乾燥로운 生活의 氷庫가 한卷의 書籍조차 살수업다는 貧困아래 모든 生의 興味를 沮喪하는 悲劇을切實히 느끼는 오늘에잇서서 그러타고 文學과 絕緣하는 悲壯한 決意를 우리는 目睹하는것도 아니다。文學이 社會的으로 擁護되는 惠澤도업고 또 文學을 爲하는 同志의 意志的結合도업시 오직 저-날리즘의 流波에 動搖만 된다는것은 그것이 不可避的 現實이라고 하드래도 批判에 値할바 充分한主觀的反省과 이에對한 새로운方途가 잇서야 할것이 아닌가?

現代 批評의『딜렘마』

批評・鑑賞・製作의限界에對하야 (5)

金起林

될수만잇스면 批評하는 作品에 關해서 成立할수잇는 여러개의 意見을 提示한후에 自己의 意見을 强調한다면 더욱 理想的일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詩人이나 作家는 오직 한種類가 아니고 事實로 한 種類로 統一할수도업는 일이다。讀者도 또한 마찬가지다。批評이 그自身의 意見에만 모-든 文學的活動을 統一하려고 夢想한다면 그것은妄想일것이다。『批評理論의誤謬의하나는 한편에 한사람의 假定的詩人을 생각하고 다른편으로한사람의 假定的讀者를 생각하는 일이다。』(엘리옷트)

어떠한 時代에도 어떠한곳에서도 進步에 奉仕하는것은 堅實하고 公平한意見이지 偏見은아니다。

세개의圓周

詩人、批評家 鑑賞者가 各各다른 사람일때에는 오즉 한가지 立場에대한 認識이 밝으면 그만이지만 萬若에 이세가지를 한사람이 兼할때에 事實로 그러케明瞭하지안흘지라도 이세가지 立場을 한사람이 뒤석거서經驗하는것이 오늘의作家나 詩人의 共通한經驗이지만 그경우에 그것을 混同하므로써 저도모르게 過誤를 犯하는일이업는가? 또는 그限界를 分明히 하지못한까닭에 스스로混亂을 느끼는일은 업는가? 또는 그것들사이에 間隔이나矛盾을 느끼는일은 업는가?

그것은 오늘의 知識的인 作家나 詩人이 內面的으로 부대치는思索上의 暗礁를 이루고 잇는것갓다。세가지의 混同으로부터 오는 過誤는 이미指摘햇거니와 그밧게도 한사람의 詩人이 批評家로서 提示한 批評의 基準과 그가實際로 製作한 作品사이에 생기는 距離는 그대로 그의內面的分裂을 불러오지 안흘가? 例를들면『허-버-트・리-드』가그의『近代詩의形態』의 冒頭에서 吐露한苦悶도 그러한 것이다。

『萬若에 한文學批評家가 偶然히 詩人일 경우에는 그는『딜렘마』를經驗하기쉽다。그것은그보다도더 散文的인 친구들의哲學的平靜이 經驗하지 안는일이다。……그러한 批評家詩人(크리틱포엣)이詩의 形態또는 構造와가튼 基本的인 問題를 파드려갈때에 그는 그自身이 經驗하는 事實에서 避해 낼수 업다。그는 그의理論、實際와의 사이에 무슨方法으로든지 統一을 세워야할것이다』。

그러한 苦悶은 오늘의 詩人이나 作家에게잇서서 거진共通된 일이다 우리는 대체 이어려운『딜렘마』들을 어떠케 가리고 나아갈가?

나는 생각한다。우리는 우리의 內部에 엉크린 詩人과 批評家와 鑑賞者의 立場을 밝혀서그 位置를 정해주어야 할것이다。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各各區別해서 驅使하므로써『딜렘마』로부터 解放되기를 차즐것이다 그러한일은 勿論 어려울것이나 그러타고 내버릴것이 아니고어떠케든지 努力해서 어더야할일이다。

나는 詩人 批評家 鑑賞者의 限界를 똑바로 그려야 되는 場面에 다다랏다。即 詩人은 製作者다。製作의 途程에 잇서서는 그에게는그의藝術만이 眞實하다。그는오직한개의方法論을 쪼차간다。그것은 그의製作上의 信念과 必要를 體系化한 것이다。따라서 그것은 主觀的인 生理的인 部分 即自己反省과自己合理化의側面을 濃厚하게지니고잇다。그가詩人의 限界를 넘어드되지안는限 그것으로도 조타。그러나 그가 한번 그 境界를 너머서 批評家가 될려고할때에는 그의 生理的인 資産은 모다 떨어버리고 客觀的인 態度와 基準을 準備해야할것이다。

批評家는 먼저 分析者다。다음에는 判斷者다。終始一貫 科學的인 客觀的인 立場에서야 한다 그는 그의 詩論을 超越해야한다。그것마저를 다른 對像과함께 가튼 系列에 노흘 胸度가 잇서야한다

鑑賞者는 享受者다。分析이나 判斷의 强烈한 要求를 늣기는 일이업시 다만 바더드려서 그中에서 一部를 選擇해가지고 一部를 拒絕한다。그일은 그의 自由에 屬한다。批評家에게는 그러한 自由가 許諾되지안는다。그는 한번은 拒絕하고십흔것도 그러치안흔것도 平等하게 分析해서 評價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튼 中心을 가진 大小 세개의 圓周를 假設할수가잇다。가장 外廓의 圓周는 鑑賞의 限界고 가장 적은 圓周는 詩論의 線이고 그 中間의것은 批評의 限界를보이는 線일것이다。

나는 最後로『리-드』가 提示한 理論과 實際의 相剋에대한 問題를 생각해보려고한다。詩論이나 批評속에서보인 理論은 勿論製作의 理想에 關해서 말하엿슬것이다。그래서 實際의 製作과 그理想과의 一致는 詩人의努力의 目標일것이고 그의製作이 그理想에 미치지못한다고해서 곳 그責任은 理想이 질것은아니고 오직 製作의 修業의不足이 저야할것이다。理想은 노플스록 조코 그것을 追求하는詩人의 詩作은 恒常 不幸하게도 그近方에조차 가까이가지못하는것이 通例다。그것은 詩人의 永久한 悲劇이나 그러타고 這間에 妥協的統一가 나와서는 아니된다。

『散文的思索에서는 그는 바로 理想에依하야 占領되여야하나 詩를쓸때에는 그는오직 現實性을 取扱할수 잇슬뿐이라고 말하려다』라고한『엘리옷트』의말은 그대로『리-드』의 苦悶에대한괴로운 解答일것이다 (一二、一五)

漢詩募集

題 迎春

押 生

限十二月十五日

(薄謝進呈)

鄭芝溶詩 出版記念會

詩人鄭芝溶氏는 多年間의 作品을모아 今番 詩文學社에서 出版하엿는바 이를 記念하기爲해 그親知에사람의 發起로 左記時日、場所에서 記念會를 열것이라는데 多數人士의 參加를 바란다고한다。

時日 十二月七日(土)午後五時

場所 天香園本店、

會費 一圓(當日持參)

發起人 金起林 金尙鎔 金復鎭 金岸曙 金珖燮 金晉燮 金煥泰 李東九 李秉岐 李霖 李瑄根 李敭河 李殷相 李源朝 李泰俊 李軒求 柳致眞 朴八陽 朴泰遠 卞榮魯 徐恒錫 吳熙秉 張勃 鄭寅燮 崔載瑞 成大勳

野談社移轉

月刊雜誌『野談』社는 그동안 臨時로 定하엿든 事務所를 떠나 鐘路二丁目 德元빌딩으로移轉하엿다고한다。

舊居遺話 ⑨

湖岩

磚洞政丞의舊基

磚洞政丞에는 金思轍과 趙寅永은 잇스나 여기는 압헤분을 말하려한다 金思轍은 純祖때 左相이니 長壽하기로 有名하다 五百年을 通하야 政丞中에 가장長壽한이를 꼽자면 世宗때 領相인 黃喜와 世宗때 左相으로 燕山때도라간 李貴齡과 純祖때 左相인

金思轍과 憲宗때 領相인 鄭元容인데 이네분은 모다 九十을 넘어 살엇다 金思轍은 벼슬이 南行으로 府使는 햇스나 牧使는 하지못햇고 武로 御將은 햇스나 訓將은 하지 못햇고 文으로 左相은햇스나 領相은 하지못햇다고 好事者는 이것을 一種이야기삼아 말하거니와 金思轍이라면 점잔은政丞이엿섯다

그집은 오늘날朝鮮佛敎中央敎務院의 마주편 前日普成學校자리며 그압헤는 豐恩府院君 趙萬永의 아우 領相趙寅永의 집이 잇섯는데 傳하는 말에 金思轍이 요새 나는 압집이 가리워

南山을 못본다고하엿더니 이말을듯고 趙寅永 집에서 그舍廊을까가내렷다 한다 金思轍의집은 歷史的으로 由緖가깁흔 喬木世臣의 舊基이다 이집來歷을 말하면 肅宗大王께서 三娶仁元王后의 國舅인 慶恩府院君金柱臣을 爲하야 지여주신 邸宅이다 思轍은 慶恩의 曾孫으로 磚洞政丞의 일홈이 놉핫스며 思轍의孫인 鼎集과 鼎集의孫인 敎獻(號茂園)에 이르기까지 八代동안 이집에서 顯赫하게 살엇는데 特히

茂園은 仕宦으로 아니라 論할것 典故學者오 韓末志士의 한분이다 慶恩으로 茂園까지 世居하든 이 舊基는 磚洞政丞의舊基라고 稱하는것보다 慶恩府院君의 舊基라고 稱하는것이可할는지 모른다 問題는 宗橫路로 드러가나 肅宗께서 前後三娶의國舅를 爲하야 賜欽하신三邸(初娶光城金萬基邸곳 齊洞前暫慶欽집터、再娶驪興閔維重邸 곳지금安洞感古堂、三娶慶恩金柱臣邸)中에 感古堂의一部가 겨우殘存한外에 光城邸와 慶恩邸는 遺墟만 남아잇슬 뿐이다。그런데 感古堂이 閔中殿마마로 해서크게 나타난것과가티 慶恩邸도

仁元后로말미암아 널리알리게 된것은 거의 비슷한點이잇다 仁元后는 비록 스스로 子女를 설어보지 못하엿스나 英祖를 잘愛護하야 님검으로 세웟다 愛護라하되 仁元后는 繼世가 되니만치 英祖보다 겨우七年長밧게 더되지 못햇다 그러나 仁元后는 淑德이 놉흐신어른이라 自己네집이 少論임에도 不拘하시고 도리어 老論의편을드러 英祖를 돕게되엿다 만일 仁元后께서 老論편을 들지 안혓드면 英祖의 登極을 보지못햇스리라 이러케 생각할때는 仁元后의 恩德이 엄마나 크냐 그럼으로

英祖께서 仁元后의 恩德을 깁히 感銘하사 仁元后가 도라가시매 因山하는날에 前例를 깨트려 陵의뒤에 高陽三十里明陵까지 隨喪을 하셧다 이러든시 仁元后의 極에 對하야 深功大恩이 계신 仁元后의 磚洞本第는 그七代孫茂園에 이르러 時異事變하야 마친내 維持하지 모하게되엇다 이집이 慶州金氏의손에서 떠난뒤에도 朝鮮私學의 元祖라 할만한

普成學校가되어 兩種(中等 과專門)의 共存하야 黎明期에 잇서서 幾多의 人材를 여기서 培養해내엿슴은 누구나 아는事實로 이 普成學校를 創立한 校主 忠肅公李容翊과 그孫子 李鍾浩께對하야 우리는 敎育界의 恩人으로 그 功勞를 感謝하지 안흘수 업다 여러번變遷을 지내여 그後普成學校가 惠化洞으로 옴겨간뒤에도 어느때잡간 實踐女學校의 看板이 걸려잇섯고 또 요새는 明星學校의 看板이 걸려잇다。

△訂正 樂觀大臣의집터 第一段第十一行『張志恒』은 李昌運으로訂正하고 그外에도『張志恒』은 모다李昌運으로 覆正함

『안더센』의 아버지는 佛蘭西사람이다

【코펜하-겐發聯合郵信】北歐出生으로 童話大家인 한스、크리챤、안더센』의父親이 佛蘭西人이엇다는것을 요지음 그가出生한나라 丁抹서 發見되야 好事家의 評判거리가되고잇다。

그事實의 發見者는 에취、지올리크氏라고하는 안더센硏究家인바 氏는數年間에 亘한 硏究結果로 從來國籍姓名이 模糊하든 그父親인즉 실상훌륭한佛人이엇다는것을 明確히 言證하기에이르럿다

올리크는말하기를——

『안더센의母親은 다아는바와가치 시집을여러번 밧구어 다닌까닭으로 안더센自身의 父親이 누구라는것을 지금까지 모르고지냇다。從來알려진바로만 보면 그子는 펜島오덴세라는 적은거리에서 非常히 가난하게사는中에 그때갓즘 나폴온一世로부터 派遣되는 佛蘭西 兵士들과 戀愛를하얏다 一七九九年 엇던兵士와살아서 한사나이를 나헛스나 곳그女子는 다른사람에게로가서 또한아들을 나케되얏스니 그들째아들이 안더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調査에依하면 그것은 잘못 안것이다 그의父親은 쟌、니콜라스・고맘이란는 말누搽出生의 佛蘭西人으로 丁抹와서 오덴세學校에서 佛語敎授를해가지고 裕福한生活을하는中 그女子와結婚해서 안더센을 나핫다 나는近間나오는 안더센傳中에다가 그調査結果를 너호랴고생각하고잇다

黑風 【192】

韓龍雲 作 金熊超 畫

복수(復讐) 2

그사람은 왕한이가 의심하는 바와가티 장지성의집 자동차부이든 사람이엇다 그사람은 왕한의 강도사건을 당한뒤에 왕한이가 던저주든 십만원돈을가지고 도망하야 성명을 변하고 이리저리 숨어다니다가 수삼년이 지나서 경찰의 수사도 별로 업고 자기의 마음도가라안진뒤에 어느 친척의 소개로 향항에와서 장가를 들고 여관영업을 하는중인대 그사람도 왕한이를 보고서 처음에는 낫은 익은듯하나 누구인지 몰라서 의심하다가 원체가 비상한 일을 겪글때에 본 사람이라 잠간 본 이상이라고 잇치지 아니하야서 마츰내 강도사건의 주인공이든것을 알게되얏다 그리하야 그사람은 사건당시에 자기의 주인 장지성이가 피를 흘리고 넘어저 죽든것과 왕한이가 피스톨로 자기를 겨눌때에 자지러지게 놀나든 광경이 어제 당한일과가티 눈압헤 반반히 드러나면서 다시금 소름이 끼침을 깨다럿다 그러나 그사람은 왕한의과거만 무서워할뿐 아니라 왕한의 현재를 더욱 의심하게 되얏다 다시말하면 왕한이가 지금까지도 그러케 무서운 살인강도의 행위를 계속하는지 만일 강도행위를 계속하는중 이라면 자기에게 온것도 엇더한 수단으로든지 자기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어갈 계획이나 아닌지 또는 그러치는안타 하더라도 강도사건당시에 수중에드러온돈십만원가량이 실로 자기에게 준것이아니라 언건결에 빼첫든 것으로 자기의종적을 탐문하고 차저와서 그돈을 도로 달날것이나 아닌가 만일 그러타면 그 돈을 아니준다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오 경찰에 고발을 하자니 후환을 알수업슬뿐 아니라 왕한이가 그때의 사건을 엇더케든지 자기에게로 물너씨울는지도 모르는일이오 그러케까지는 가지안는다 할지라도 고발을 하는날에는 하여간 자기까지 연루가되야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성가시게 될것은 정한일이므로 자기로서 먼저 고발할수는 업는일 이라고 생각하얏다 그리하야 왕한에게 대한일을 엇지해야 조흘는지 마음의 갈피를 잡을수가 업섯다

왕한은 여관방에서 이생각 저생각 하너라고 밤 열한시가 지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엇다 안젓다 하는중이엇다 다른손들은 잡이들고 집안은 조용하얏다

왕한의방에 노크를하면서

『손님 주무시오?』

하는 소리가 들녓다

『누구시오?』

하는 왕한은 누은채로 고개만 드러 방문편을 바라보면서 대답하얏다

『용서하시오』

하고 방문을 여는 여관주인은 손수 주안상을 가지고 드러와서 왕한의 압헤 노으면서

『주무시는데 실례합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 인사한다 왕한은 급작이 이러나 안지면서

『관계업습니다 웬일이시오』

하고 의심스런 눈으로 그사람을 본다

『나는 이집주인 마등(馬登)입니다 밤이 깁흔대 미안하오나 아직 주무시지 안는듯하고 조금 엿주어볼 말슴도 잇고하야서 드러왓습니다』

하고 조금 주저한다 왕한은 그사람에게 대하야 여러가지로 의심하고 생각하든차 에 뜻밧게 그사람이 드러와서 할말이 잇다고 하는데에 대하야 이상하게도 생각하얏스나 또는 파혹할 기회라고도 생각하야서 무방하게 여기엇다

『예 말슴은 무슨말슴인지 모르나 나도 잠은 아니오고 심심한든차에 잘 오셧소』

왕한은 그사람의입에서 무슨말이 나오는가를.듯고십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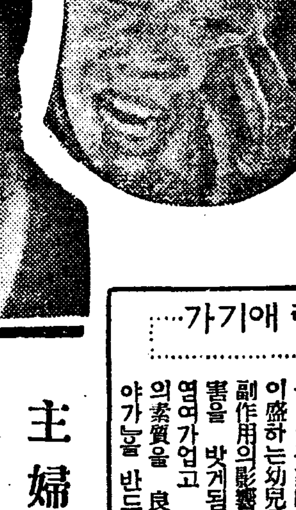
『말슴은 차차、하지오 술이나 먼저 한잔 드시지오』

하고 마등은 술을 한잔부어서 왕한의압헤 노코 또 한잔을부어서 자기의 압헤 놋는다

이것은 큰잘못임니다

頭痛이난다。齒痛이난다。眩氣가난다고해서 解熱劑나、痲痺劑로된 過去의 一時的痛症防止藥(頭痛藥)을 濫用하는것은 큰 잘못이올시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種類의藥은 一時的 눈가름이됨으로써、腦症狀의 原因에는거이 効能이 업슬뿐아니라 胃腸을 糜爛시히는 副作用이 퍽 激甚함으로써이다。모든 腦神經의 疲勞와 痛症은 頭의 過勞와 胃腸障害가 主因이되며、腦細胞에 燐、카르슘이 不足됨에따라 惹起되는 症狀인것은 最新學說의 認許하는바이며、따라 頭의榮養劑『하레야가』로 充分한 腦榮養을 補充하야 根底로부터 治療하는以外에 正當한療法은 업는것이다。

世界中의憂鬱을 휩쓰러다罐詰을식힌거와 가튼이 三人이 『하레야가』를먹고五分後、엇더한表情을할 것인가?여러분想像 해보시오。



『하레야가』의効能은주구려부친얼골을 아침 햇볏과 가티웃는 낫을나타내게한다。

家長께

會社로부터疲勞되야 歸宅하여술때에、過飮하야 宿醉하야 머리가아프다고하실때에、神經衰弱으로 언제나不愉快한낫으로 돌아오는家長께는 무엇보다도『하레야가』를 勸하여주시오。燐의補給으로 腦호르몬이만히 助長되기때문에 疲勞는씻슨듯이 快復되며、엇더한 硬氣의분이라도 元氣가나서 明朗하여옵니다。

어린애기가……

虫齒나 니뿌리가압허서苦痛할때、齒痛劑라고하는痲痺藥을먹이는家庭이만치만、發育이盛하는幼兒들의胃腸은 그副作用의影響으로 두려운被害를 밧게됨으로써、그러한 염려가업고 齒神經이나 齒의素質을 良好케하는『하레야가』를 반드시……

主婦께

頭痛眩氣는 따르는것이라고하지만、『하레야가』를 少量식服用하면 常習頭重이나、月經前後血道不快도 몰으게되며、特히 히스테리、産後의 頭痛의治療에는以上더업는것이다。엇더한일이라도 머리가資本되는今日、一家의 醫師라고할수잇는主婦께서는 늘『하레야가』를 常備하야 自身도勿論이지만 家族의頭腦을護養하라。

頭의養榮劑

はれやか

하 레 야 가

(데파-트藥品部各地藥局藥店에잇슴)

藥價 ￥0.30 ￥0.50 ￥1.00 ￥2.00 ￥3.00 ￥5.00

脫線的怪候繼續 明太魚乾燥困難

乾燥途中에全部腐敗하므로 當業者들의頭痛거리

【咸興】 함남연안은 근어의 대풍어에계속하야 명태어(明太魚) 어획도 극히호황으로 긔선저예망(汽船底曳網)일척에 매일평균 일백오십타(駄)식이 어획하고잇는형편인데 금년은 기온이 아직도 겨울답지안케 매일가티 온화한 긔후가 계속되고잇슴으로 잡은 명태로젹어 건태(乾太)를 만들려고하여도 모다 썩어버림으로 당업자들의 타격은 극히 막대하다는데 이런일은 전대미문의 괴사라고한다

文山面遠星里 公會堂落成式

【東倉浦】 황해도 안악군문산면 원성리에서 공회당 건축에착수하엿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이 공회당이 준공되어 지난사일오전십일시부터 안성훈(安聖勛)씨 개회사로 락성식을 성대히거행하엿다한다

공사비를 보내여 기부금이답지한다함은 긔보한바 언니와 그후본보의 긔사를 보고 부여군 남면 금천리 김교일(扶餘郡南面金川里金敎一)씨의 십원을위시하야각지에서 의연금이 계속답지한다는데의연자는 다음과갓다 ▲[illegible] ▲十圓式 [illegible] ▲五圓式 [illegible] ▲三圓式 [illegible] ▲二圓式 [illegible] ▲一圓五十錢式 [illegible]

公金消費豫防으로 監督徹底通牒

【新義州】 최근 관공청직원의공금소비등의 부정사건이 빈발함에대하야 평북도에서는 금후부정사건에대하여서는 단연 엄벌주의를취하야 강긔숙정(綱紀肅正)에 진력하게되엿는바 부정사건의미발방지에 전력하는 제일보로 내무부장의명의로 관하 부윤(府尹)군수(郡守)에 대하야 공금취급에 대한 주의를 발하엿다한다

金壽長氏美擧

【寧美】 평북령미에 거주하는 김수장(金壽長)씨는 남회학원(南晦學院)에서 현재쓰고잇는 풍금이 쓰지못하리만치 허러젓슴을 통정하야 시가이백여원짜리 풍금을긔증하엿다한다

安東縣在住同胞 簡易商業校期成

爲先寄附金萬圓을募集 明春에는開校豫定

【安東縣】 안동현유지륙십여명은 수년전부터 현안중에잇든 상업제간이상업학교(簡易商業學校)설립을 실현키위하여 지난 이일오후네시반부터 압강춘(鴨江春)에 모이여 동여덟시반까지 장시간동의한결과 긔성회를 조직하고 명년사월부터 개교키로 결정되엿다는데 그내용을 들어보면 상업학교교사(校舍)는 전신흥(新興)학교자리로 정하고 명년상반전으로 우리동포들에서 일만원의 긔부금을 모집하여 나가기로 하고 졸업생은 십여게로 불원간 긔부금모집에 착수하리라는데 위원은 다음과가티 선정되엿다한다 ▲委員長 金虎實 ▲委員 李熙重 崔謙愚 金昶 金得珠 李大官 崔忠元 李忠根 金承明 李明植

龍山甲寺)는 표충원(表忠院)과 전긔승장 영규(僧將靈圭)대사의 비각(碑閣)이 풍마우세로 퇴락되야 전긔갑사주지 박중선(朴正善)화상은 표충원과 비각을개축공사를 하기위하야 당국의긔부금 모집허가를어더 긔부금모집에 착수한바 자진하야 전긔

道路工事場에서 人夫三名이死傷

鎭海邑外의慘事

【鎭海】 경남진해읍(鎭海邑)에서는 읍내의 간부락간의 도로가 완비되지못하야 교통상 불편이 만케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진해읍에서는 금년부터 제일착으로 니동(泥洞)、석리(石里)간의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이일에 해공사를 시작케되얏는대 당일오후한시반경 해공사장에서 [illegible] 인부한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두명은 중상을 입게되야 목하 진해병원(鎭海病院)에 수용하고 치료중이라 하며 사상자씨명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鎭海邑慶和洞 李仁植(二)死亡

鎭海邑石里 柳成祿(八)重傷

同 張甲使(二七)重傷

東光學院增築 落成式日延期

【興南】 함남서호진에잇는 사립동광학원이 금번에 교사를증축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동안 때아닌 장마비로 십여일이나늣저 신설교실에 준공예정이든것이 십이월십오일 이후로 연긔하엿다한다

運賃元拂問題紛糾 雙方이互讓解決

自一月一日實施解決

【群山】 긔보 운임원불(元拂)문제로 군산미곡상조합(群山米穀商組合)과 긔선회사(汽船會社)측과의 대립으로인하야 압프로의 사태가 가장 주목되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동문제는 문제가 문제니만큼 문제의 성질로보아 상당한 분규를 면치못하리라고 일반관계자들은 추측하고잇든바 요행히 지난삼십일 오후삼시삼십분부터 미곡상조합회의실에서 쌍방대표자가 회견하야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원만해결하얏다한다 그런데 해결의내용에잇서서는 긔선회사측으로부터 원불문제에대하야 즉시실시함에 잇서서는 만흔지장이잇슴으로 명년일월일일부터 실행하도록 하야달라고 요구한바 미곡상조합측에서는 긔선회사측에서 명년일월일일부터 절대책임을지고 금후 다시 이의가 업다할진댄 그것쯤은 양보하겟노라하고 량방이호양(互讓)정신에립각하야 그가티 원만해결을 본것이라한다

全州川護岸工事

救窮策으로方今着手

【全州】 삼만여원의 공비로 전주천(全州川) 일부미진한 호안공사를 명춘부터 착수한다함은 변래로 착공계획중 지난이일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부내 궁세민의 금년과동기를 우려하야 터 실지로 공사에 착수하엿다는데 현영장은 남문교(南門橋)원편한벼루밋테서부터 남문교밋까지라고 한다

一身二頭 畸形牛

【金川】 황해도금천군고동면지동리(黃海道金川郡古東面紙洞里)삼번지 류상훈(劉尙薰)의 소유 암소는 지난이십이일에 새끼를 나엇는데 멀이둘이 달린송아지가나와서 한참은 관람객으로 혼잡을 일우웟섯는데 송아지는 얼마후 곳죽엇다한다

製鐵工場基地 地均工事着手

【興南】 조질와국의 긔칠[illegible]는 사업계획에 흥남본궁외[illegible] 론 북조선일대는 미칠듯 그기에뒤고잇슴은 각종보도가 증명하는바 이미발표한 흥남본궁상리에방계(傍系)제철대공장을계획하야 착착준비중이든바 이번에 그실현을보게되여 약삼만평의 부지를어더 기지준공사를 원에 착수하야 느저도 명춘삼월부터는 건축에착수하리라한다

農山村의救濟策으로 巡廻製材所設置

咸南道産業課計畫

【咸興】 함남도산림과에서는 사유림(私有林)의 벌채를 극히 엄중히 취체하여 치산지수의 만전을 긔하는동시 농산촌의 삼림부업을 중대시하는 방책으로 민간순회 간이제재공장(民間簡易製材工場)을 설치할계획을 세우고잇다는데 그공장은 동력이 약십오마력을가진 자동차에진이상을 가조하여 원목 일천오백척을 가지고잇는 촌락으로부터 촌락으로전차 이동하게되는것으로 그공장에 요하게되는 비용은 약일천사백원가량으로 그반액은 도비로 보조할터이며 래년도에 위선 안변군 학성면(安邊郡鶴城面)부터 착수하리라는데 목하 피폐를 다하고잇는 농산촌의 한구조방도가되리라고 긔대가크다

運炭車開通으로 四百餘運炭夫離散

大同江의結氷으로作業中止까지되여 平南船運組對策講究

【平壤】 긔게문명압헤구축을 당하는 가련한사람들—평남선운로동조합(平南船運勞組)원 사백여명은 운탄렬차(運炭列車)가부설개통되어래 운반할 석탄의부족을 고하여 자연히 수입이감소됨으로 부채만 느러가게되여 야간도주자가 속출하는 현상이더니 대동강에 어름이 붓게되여 칩입로서작업은 완전히 중단되고마럿다 작년만 가텃도 살、사백명의、수입이 잇섯스나 금년은 고향에도라갈 려비가 업는기막히는상태이므로 할수업시 반수는 해고를 하고 남은 반수로 래년의 운탄을 하기로 되엿스나 이역시 생활보장이 곤난할 현상이어서 조합에서는 대책을 연구중이며 더욱이 이번 해고당한 선부들은 각탄광에 향부로 각각 흐터지고 잇다한다

聞慶의潁江橋 初渡式盛大擧行

【聞慶】 경북 문경군의 영강교(潁江橋)는 금년신월 부터총만 사천원의 예산으로 긔공하여이래십개월간 공사를 진행 하든중 그동안 준공되여 지난 십일월일에 초도식을 거행하게 되엿는바 수십년을 두고경부김천안동(金泉安東)간 도로의 빈번하든 교통두절로 이로써 완회되리라한다

徐直淳氏美擧

【茂朱】 무주군안성면 금평리 서직순(徐直淳)씨는 금번안성면부담인 전북의연금(全北府義捐)이백원에대하야 궁민의 부담이 과중함에 동정하야 전긔 이백원을 자담하기로 해면면장에게 표시하얏슴으로 면민일동은 씨의특지에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疑雲에싸인 老婆被殺事件

强盜所爲로判明

【海州】 지난삼십일 오후십일시반경에 황해도옹진군봉구면도화리(鳳邱面桃花里)사는 최경(崔京)(七〇)이라는 로파가 취침중에 피살되엿음을 동리 사람들이알고 곳부포경찰관주재소에 급보하얏슴으로 주재소에서는 곳본서에 급보하는동시에 응원을 청햇슴으로 본서에서는 리사법주임이 형사를 대동하고 현장에출장야 검시한결과 시체에 별로외상(外傷)은 업스나 현장의 모든 점으로보아 강도의 소위로 추정한후 범인체포에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얏다한다

表忠院改築費에 各界義捐逕至

【公州】 긔보=임진란(壬辰亂)의 공신서산(西山)사명(泗溟) 령규(靈圭)삼대사의 령정을 모신충남공주군 계룡산갑사(公州郡鷄

電話直通線廢止로 汶山住民大不平

【汶山】 문산은 금번에 시내전화가 가설되고 나날이 발전되여가는데 체신당국에서는 경성문산간전신전화선이 한하야 九九십동이나될것이 필요업다고 폐지하고 개성선(開城線)으로 변경하야 문산은개성이 본선을사용하게한다는바 전에 경성과의직접통신에 이때한 불편과지장이 잇게되므로 일반주민은 당국처사에 크게분개하여 마지안는다 고무한히 우편소장을 책망하므로 소장은 고랑포(金村一山)에서는 저번 못하다 십히하야 문산은 물론금촌일산등지에 인사들은 체신국에무리한 폐지를 비난이 놉다한다

公普校增築費로 一金千圓喜捨

【興南】 원적을 리원군 차호(遮湖)에두고 현주서호진에서 수산업을경영하는 차호어업조합장 리주경씨는 그고향인 차호공립보통학교증축의 소식을듯고 자진하야 증축비중천원중에 일천원을 자진희사하엿슴으로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新義州

家庭婦人講習會

▲期日 自十二月九日 至同十一年三月末日

▲場所 第二禮拜堂下層

◇主催 新義州敎會勉勵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新義州支局

異次頓의死 【60】

李光洙 作 金奎澤 畫

메주한가는 이차돈을 여러번 만날사록 더욱마음에 들어 아모리하여서라도 이차돈을 고구려사람을 만들어 나라에 힘잇는 일人군이 되게하고 십헛다. 한나라가 망한 뒤로 여러 조고마한세력들이 서로 차호고 위니 탕이니 하는 천자란것들이 생기나 모도 용렬한 힘이 업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거꾸러지는 이 조흔 긔회를 타서 한토를 들이칠 경륜도 잇고 또 마입신라와 백제가 이 큰 경륜에 아모리하여도 응하지아니하면 왕검의 정통이란것위를 가지고 이 두 나라를쳐서 하나를 만들어 안에 잇는 근심을 멀어버릴 경륜도 잇섯다.

『아아 세월은 가고 이 몸은 늙는고나』

하고 메주한가는 혼자 칼을 어루만지며 한탄하엿다.

『부귀와 영화에 취한 무리들이!』

하고 조정에 잇는 힘업는 무리들을 위하야 한탄하고 또 임금이 인자하시기는 하나 불도에만취하야 삽생을 심히하고 나라의 위엄을 떨치라는 긔백이 업는것을 한탄도하엿다.

한가는 그 아들들을 모아노코는、

『너희들은 아느냐、평양은 모든 나라의 나라다.』

이러한 말도 하엿다.

한가는 그 아들들로하여금 이차돈에게 경술과 활쏘는 법을 배호게하고 이차돈에게 대하여서는 항상 한토를 경영할 큰 이상을 말하엿다。고양이 이마만한 이 땅에서 세나라이 서로 다토는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니 세나라는 본대한조상의 자손인속 서로 화친하야 한토에 대할것이라는 말을 하엿다。메주한가의 말을 들으면 들을사록 이차돈은 그 말에 탄복하야 어렴그렷하는 하는 동안에 적국사람이라는 의심하는 간격이 슬어지고 진정한 동지요 선배로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엿다。더구나 어떤날 메주 한가가 이차돈과 그 아들을 다리고 왕검을 모신 신궁에 가서、

『보라 이 어른은 고구려의 한아버지시오 신라의 한아바지시오 백제의 한아버지시니 우리 함께 절하자」

할때에는 이차돈은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가 네오 내오 할것이아니라 모도 하나임을 보앗다.

메주한가의 아들들도 이차돈을 친 동긔와 가티 사랑하야서 하로라도 못만나고는 못견되엿다.

어떤 눈 만히 오는날、이차돈은 메주한가의집에서 술을먹고 늣도록 놀다가 이불라사 종소리를 듯고 깜작 놀라서 겨울보고의 집으로 돌아오려하엿다.

이 때에 메주한가의 큰 아들 고주가 이차돈을 붓들며、

『아버지께서 형이 가시기전에 잠깐 할말이 잇다고 하시고 큰 사랑에서 가다리고 계시니 잠깐만 다녀가오』

하엿다.

이차돈은 옷을 바로잡고 큰 사랑으로 갓즉 메주한가는 아직도 자지아니하고 초人불을 켜놋고 엄연하게 안저잇엇다。

이차돈이、

『놀기에 미처서 밤이 깁흔 줄을 모르고 이불라사 새벽 종을 들엇소』

하고 하직하는 인사를 하엿더니

메주한가는 이차돈에게 잠깐 안즈라 하고

『내 긴히 한 마듸 할 말이 잇스니 늙은 사람의 말을 물리치지마오』

하엿다.

『무슨 말슴이신지 모르거니와 한가께오서 이몸을 아들가티 사랑하시니 우리 신라시나라 국법에 어그러지지안는 일이면、우리 신라시나라의 충、효、신、용、인(忠孝信勇仁)에 어그러지지안는일이면 어떠한 말슴이든지 듯겟소』

하고 메주한가를 바라보앗다。

『올흔 말이오』

하고 메주한가는、

『다름이아니라、이몸이 서방님을 사랑하매 줄것이 업소、무엇을 주어야 이몸에 지극한 정을 표할것이 업솽 마춤 이몸이 딸 하나가 잇스니 어리나마 서방님의 짝이 되기에 하그리 부끄럽지는아니할듯 하니 그것을 바더주오』

하엿다。

有恒社藥品部의壯擧 藥價五割引斷行

朝鮮初有의特別奉仕!

[illegible] 有恒社藥品部의 [illegible] 天下가 [illegible] 大〇大[illegible] 도나이다、[illegible] 하여지다、[illegible] 이全鮮[illegible]!!이는 有恒社藥品部特効[illegible] 아즉有恒社藥品部特効神藥의[illegible] 키爲하야[illegible] 好機를 勿失하시고 [illegible] 됨을 [illegible]하시라!!

六〇六호이상듯는 독일ホフマン박사가 발견한 매독균엔

梅毒特効藥 日東도구도루丸

매독은창병、당창이라고도하야 코나 신이떠러지는 무서운전염병인데、부모나 선조에게 매독이잇서서 그병이자손에게 유전(遺傳)되야 생기는것을 선천매독이라하며、남자가 화류계여자에게전염하야、가정부인에게까지 전염식키니、이것을 후천매독이라한다。전염되는독시는 그다지 고통치안음으로 그대로두는분이잇지마는、이것이영구히 매독으로 고생할 큰원인으로 그동안 병균은 맹렬히활동하야、피부나、근육이나、내장신경등을 물론하고 사람의 어느곳이든지、색여먹는 참두려운병이다、이병에 걸니면의례히 유명유효를 차즈나 일시적이지 다시재발하는것은 경험한환자가 더욱잘아는일이며、유명한 독일박사도 유명유효를 만능환자의게 실험한결과、매독의재발을 절대로 막지못하얏다고하얏다。매독에는 초기、이기、삼기가잇는데 유명유효나 사약수은등 별별약으로 근치되고 재발하야 고통하는분은 하로밧비유명한 高級梅毒藥『일동도구도루환』을쓰시요、부부간한사람의게매독이잇스면 양인이모다 약을쓰는것이 제일안심되오、매독은 자기뿐만아니라 독이자손의게까지 유전한다는것을 생각하시오 코가헐고붓고 목이 쟁기고、눈이희미하고、머리가 빠지고、팔다리가쑤시고 머리속이허려 부스럼이나고、목에 여기저기종기가 터지고 국부에 부스럼이나거나 헐고 가렵고 선천매독삼기를지난 악매독(惡梅毒)당창 양매창 하감 요고네등 매독일절에 꼭쓰시오 구감기타 부작용은 절대로업고 음식은 술、기름진음식만 가리면됩니다。

약갑 악성용삼기용九원、만성이기용五원、경증용三원、송료 선금무료 인환대금 삼십오전

유명한 독일コッホ박사가 세게적발명한결핵균엔

肺病全治藥 유-고-루

폐병은뇌점、부족증이라는데독일『コッホ』박사가 세게적위대한 발견을하야 천지를진동케한 결핵균이 폐를파먹음으로생기는 두려운 전염병인바 폐병환자의담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면 약삼억만개의 놀나운결핵균이잇다 内務省統計에依하면 일년간에 약오십만명이 폐병으로신음하야 그중약십칠만명의 귀중한생명을 빼앗기는 무서운악질이다 폐병에 걸녀도초기는 잘특성이만하야 여간침중키 어려움으로 신경쇠약이나 위장병으로 알기쉽다 이와가티 부지중병균은 지독히활동하야 이기 삼기 사기가 되고만다。심상폐병균가치 여러가지중세를 이르키는병은 업다。그러나 결핵균만 업새면되는대 종래에는 아모효력도업는 부적당한치료법을 과신하야 공연히 치료할때를노치고 폐병은 걸니면 죽고살지못한다고 한탄만하엿다。

아모리악성삼기의 폐병이라도 픽나는약이라면 닷새나 열흘의 복약으로 신효함을 환자자신이 자각할것이다 有恒社藥品部에서는 불행한환자를 구하기위하야、고심연구한결과 세계적신발명의 고급지폐약『유-고-루』를 복용하면 살균 배독작용을하야 복약후기분이 대단상쾌하고 두통이나 완고한열도나리고 구미가생겨 식욕이증진하고 원기가나서 혈색이조와지고 쇠약을회복하야 살이오르고、기침、도한、오한、숨가븐것、피토하는중세나、혈담、가슴아푸고、역구리결리고、사지가아푸고、뇌곤한중세등에 綜合的으로作用하야 奏效를본다、별별약을다쓰고、백방으로 모든치료를하여도 낫지안어 고통하는분은 생명은 귀중한것이니 일시라도 속히 高級治療藥『유-고-루』를 쓰시오。

약갑 삼기용이십원、이기용십원、초기용오원、송료선금무료 대금인환삼십오전

八個年이나된肺病이完治

因城郡邑東外洞 金化七

拜啓 日益繁榮之地仰祝不已第貴店廣告를見하고藥을服用하는中八個年이나된肺病이完治되여서感謝의意를表하여엽서기로以通知합니다餘不備禮

積年肺病으로苦心타가一劑로根治

遂安郡大千面銅岩里 安鼎熙

生이積年肺病으로苦心을하든中貴社의治肺藥一劑를服用하고即時快差함으로醫家에李道善이라난者가肺病患中이옵기此藥을請求하야用時即差이옵고亦是百發百中이라如此함으로 同於三山不老草不死之藥으로認하고生은何人間病者를보던貴社의信用을說明하는바이요 [illegible]

독일ナイセル박사가 발명한림질균엔

淋疾斷根靈藥 日東淋藥

夜尿도이용기挿入感謝狀을上梓하나이다

남녀림질 대하증에 한번걸니면 여간낫기어려웁다 그치료법과 약이수천가지가되나 조금도 효력이업거나 다소효력이잇섯다할지라도 또다시 재발하야 수년혹은일평생을두고 고생하는사람이만타 림질뿐아니라 어떠한병이든지 약만바로마지면 단박에병이떠러지는것이고 효력이업는약은 아모리 만히오래먹는다 할지라도 낫지안는것이다 불행히 남자가일시적 향락을엇기위하야、화류계여자와관계하야 이병에걸니면 본인의고통은물론이나 애매한가정부인에게 전염하야 병으로인하야 밧는고통은 두말할것업고 병균이 자궁을 침범하야 생산을못하게된다 여자뿐아니라 남자도낭울침범하야 역시생산을못한다 신발명 일동림약은 남녀악성림 고만성의 세가지구별이잇는대 병증세를 기별하면 씻슨드시되고절대재발내는대 아모리 악성이라도 한제만쓰시면 바로만는약을보치안는 신효한약으로 만수로만히 수출이되는것을보지라도 가이짐작할수잇다 그리고 다른약가티 결코위가 상하지안는다。이약은 바로 살균을하야 소변으로 흘려보내는 강력(强力)한작용을하는데 아모리 숨어잇는균이라도 구축하난영약이오니 안심하고 하로밧비쓰시오。

一、수십년된 악성고질이나 재발한 완고만성림질 여자대하증(적대하、황대하、백대하)림독성관절염、산증、설호선념、자궁란소염、포도협찬등 이제거낫는신약이오

약갑 악성용九원、완고만성용五원、급성용三원

日東淋藥으로蘇生!

蔚山郡溫山面江陽里五六八 洪淳澤

生이 最著淋疾로困難이莫甚하와 廣聞四方에 或者는 何處藥品이相斗神氏指導로 貴社藥品日東淋藥二劑를 注文服用하오든結果 神效發生이日日差異에富하다니 或者는 何社藥品이 神效하다니 日日新聞則仙藥이未分明하야 何方好否를 未擇中에 遊藥費金도不少하야지며 精藥買金도不少하나 差效未得에 此日彼日이 幾至二個星霜에 深慮多端하야 故朴恰似枯木逢春之格이라 以此蘇生함을따라서 兩親老境滋味를보인듯하고 卒下妻子는喜色이 滿面함人하니 如此感想을 何以報恩乎잇가 近方逢友가 稱賀萬歲이오 或病難治者 歷訪勸誘가 第一上策일가하야 方今宣傳中이오나 失禮되오나 未面拜晤함을 容恕之地를千萬伏望餘不備禮

日東淋藥으로根治하고再發의氣가無함

利川郡淸渼面長湖院里 安太石

貴社日東淋疾藥을 注文服用한後長久히呻吟하든淋疾이 根治되여至今까지 再發의氣가無함을 感謝함을마지안습니다 淋里親友에게도 有恒社藥이 效力第一이라고 宣傳하엿습니다

기침담천식에 세기도-루

무슨병을물론하고 고통스럽지안은 병이잇스랴마는 해소나、기침、담、백일해가티 고통스러운병은 업슬것이다。해소는 어려서 시작한기침이 소년시대까지 소년시대에 시작한것이 三四십세될때까지 심하면 확실이나 칠십까지가는병이다 이병은 병자자기만 고통스러운것이아니라 가족이나같이잇는사람으로하야금 듯고보기에 또대단히딱한병이다 그러나 조선에는 확실히낫는약이 업섯다 수십년된 고질로 고통하는환자도 복약후에 효험을보는약이 발명되어 수만명환자를 구하고잇스니 아약저약별별치료로도 효험업고 고통하는분은 쓰시오 담으로 항상골골하고 천촉으로 그르렁거리고 숨이차서기침하게 기침하는사람、기침으로밤잠못자는사람、감기로생긴기침、담、폐병、뇌점、늑막염으로나는 바튼기침、목이쉬고 인후가아푼대나、백일해기침、홍역기침하는어린아해의게도 신효합니다。안심하고 쓰시옵

약갑 악성용五원、완고용三원、중증용二원、경증용一원

『세기도-루』로 頑固症이 完治

義城郡多仁面德地里 金述權

生은 年來咳嗽로 苦悶하옵든中 貴社기침藥頑固用一劑를 注文服用하옵고 漸然完治되오니 果然 貴社의 기침藥은 神奇靈藥이옵을 歎服하옵고 玆에 一言仰謝하나니다

奇蹟的靈効잇는 보약 에로수

신외무물이랑 이시대에 재상이되고 업고몸이 튼튼한것이 제일 행복일것이다 천만장자나 일국의재상이라도 몸이약하여서야 아모소용이업슬것이다。더욱양기가부족하여서는 인생의 가장큰향락을 누릴수업다。신경쇠약이나 폐병이나하는병은 문명이발달함에따라 점점느러간다 뇌와유체를만히 쓰면서도 항상보충치안하면 원기가업고몸이 약하야 결국은 조사(早死)하게된다。독일서는 지난구라파전쟁에 패전한후로 국력을 회복하려고 국민전부가 긴장하고잇다는것은 임이세상이 다-아는바이나 그유명한 히도라(ヒツトラ首相)는 몸이약한자 병신으로서 비상시 국가에 필요업는자는 모-다 죽여업새버리자는법을 시행하려고하엿스니 큰일날사람은 누구일가 그러한경우임으로 이약으로세계에 제일가는 독일에서 보약을 더욱연구하게되엿스니 그신기한 효력은 가히짐작 할수잇슬것이다。보음보양 절머지며 살찌고싶흔분은 에로수를쓰시옵

약갑 완고용十五圓、중증용八圓、경증용三圓五十錢

咸南新浦港 金桂鳳

今般貴社廣告를 奉覽하고 貴社廣告에依하여 보약에로수를 一劑請求使用한바 놀날만한 效果를보아 身體疲勞하여 不快하든내身體는 貴社補藥一劑에 全快되여 至今엔 健康한몸으로 消光함은 貴有恒社經營者는 小生에게 恩人이신줄압니다 小生은 今後로부터 有恒社藥社를 切實히미드며 아울러 잇기는同時에 世人을 爲하여 못까지 사와주심을 바라오며 來來貴社發展을伏祝함

에로수는 現世의仙藥

鏡城郡鏡城面白雲洞 金珍模

生이 去月에『エロス』一劑를服用한後로는 盜汗이自然이업서지고 食慾이 倍前以上이되고 精神이明朗한것은 長時間의勤務를繼續할지라도 疲勞치안이하니『エロス』난 現世의 無比한 仙藥이옵기에 感謝함을 表하나이다

滯症胃腸病에 마구다-

속병에 걸니면 음식을먹지못하고 먹어도맛이업고、한숨만먹어도 잘체하고、맛히몰냐고、배가압프고、명치가압프고、가슴이답답하고、쓰리고 치밀고、움식이거북하고、신물이오르고、급걸하고、배가꿀꿀하고、신트림이나고、설사가잘나고、방구가만코、대변이고르지안는등 여러가지로 괴롭게하야 몸은점점 쇠약해집니다。그런고로 왜 그런고하면、먹은것이、소화가잘되지안코 그대로위장을것처서、설사로 나오게됨으로、영양분을 조금도 섭취못함으로인한니다。고통으로 점점쇠약해지고 불구자가되게됩니다 그래서、어떤저런가신효험업는약、평장하게신문에 떠드는약으로 일시적치료로지내다가、병은끗날수업게되여 최고급의신약이 발매되여 사람이 죽으란법은 업는법이라새로발명된 최고급약이 발매되엿다니 이제그러나 [illegible]

약갑 경증용일원 중증용이원 완고용 삼원 악성용오원 송료-선금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

朝寧邑內兄弟商會 金振玉

本人이滯症으로 二十年間이나 莫大한苦痛을當하다가 마구다-를 服用한即 참으로 三神山不死藥과갓치도 特效가有하옵기 感謝함

巨濟二運面長承浦里 李道根

小生이積年間胃腸病으로苦心하다가마구다-약을使用한後消化加進及食慾이日加하야肥滿한身體를가지고 社會에활동하옵는바 [illegible]의神效가多有함을感謝不已하와此地方에 廣告宣傳하야드리겟습니다

註文方法

註文은病名을記入하야 藥價를指定하시되될수록前金으로註文하시면 藥品을特撰하여 送料를負擔急送하겟습니다 萬一前金으로 註文하시지못하실境遇에는 代金引換으로 註文하시옵 但送料는實費를加算하나이다

이외에도 各病에感謝狀이 만사오나 紙面關係로揭載치못하야省略함

京城本局私書函八十五號

有恒社藥品部

[illegible]

朝鮮內不動産抵當 個人貸借金利趨勢

④……朝鮮殖産銀行調査課發表

이제 昭和六年以降의 逐年을 併하야 表示하면 如左하다 (金額單位千圓)

村落組合區域內	不動産擔保	動産擔保	無擔保	計
京畿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都市組合區域內	不動産擔保	動産擔保	無擔保	計
京畿·忠北·忠南·全北·全南·慶北·慶南·黃海·平南·平北·江原·咸南·咸北 (各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不動産擔保	動産擔保	無擔保	計
京畿·忠北·忠南·全北·全南·慶北·慶南·黃海·平南·平北·江原·咸南·咸北 (各 六－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昭和六年·同七年·同八年·同九年·同十年 (村落組合·都市組合·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林省買上躊躇 當分米價動向靜觀

五日米穀對策委員會開催

◇…米價高繼續豫想

【東京電話商通】五日 農相官邸에서 米穀對策委員會를 열고 十年産米의 公定格差를決定할터인데 八年、九年産의古米格에는 抵觸치안코 豫者今米穀年度初에 暫定的으로 行한 格差一圓五十錢을 當分踏襲하고 古米格引下決定은 米穀事情이 窮迫한 境遇의 對策으로 남겨둘모양이다 그러고 買換買上의 件은 現在米價强調를 示하고 外地의 正租、玄米貯藏에 依한 出廻調節及 日本內地의 賣惜으로아즉도 堅調를 繼續할것으로觀測되야 農林當局으로서는 買出動치안코 暫時米價의 動向을 愼重히 보고잇슬모양이라고한다

	日本內地米	正租	玄米	白米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麗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附帶費元拂 他港에波及?

運賃에도重大關係

【京城電話電通】群航同盟會崩壞以來의 船會社는 步調가맛지안허 無統制無氣力으로되어 現在群山의 附帶費問題에 對하야 荷主側의 希望대로 一月一日부터 元拂을 承認하게되는等 船會社의弱點을 暴露하게되엇는데 이群山의 附帶費問題는 一月解決된 形式으로되어잇스나 荷主側이 胸裡에 감추고잇는 目的은 다만 附帶費의 支拂方法만이아니고 現在 群山港에서 實施하고잇는 賃貨의 二元制를 一元制로 改變하려함과 如한 意圖를 갓고잇서 附帶費의 元拂을 다시 船運賃에까지 延長하야 元拂에依한 利益을 巧妙히 享受하려는 野心을 갓고잇슴이 確實하야 今後 船會社側의 統制가 實現치안는限 機會가잇는때마다 右와如한 運動要望을 하게되리라고보인다 그리고 이問題는 單只 群山만의問題가아니어 群山港에서 今回와 如한 元拂의 特別扱을 하는以上 他港도 이에刺戟되어 同樣한 要求를할것도 容易히想像할수잇는바로 船會社側의 無氣力은 益益反對로 荷主側에 機會를 與하게될것으로 此點 船會社의 結束은 緊急히할 必要가 잇다고한다

移出港在米

九十三萬六千石

十一月末現在狀況

朝鮮各移出港의 十一月末現在在米高는 民間所持 六十四萬八百八十八石、政府米 二十九萬五千三百十四石 合計 九十三萬六千百二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萬五千百八十七石減이나 前月末에 比하야 三十五萬八千三百十石加이다 (以下單位石)

	民間持	政府持
日本內地米	[illegible]	—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糯米	[illegible]	—

그러고 各港은 다음과갓다

	民間持	政府持
▲釜山 正租	[illegible]	—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糯米	[illegible]	—
▲馬山 正租	[illegible]	—
玄米	[illegible]	—

京城組銀 預金貸出

十一月末增加

十一月末京城組合銀行의 預金貸出狀況은 預金 一億五千五百二十三萬五千圓으로 十一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一千七百三十四萬六千圓增加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千六十七萬六千圓增加이다 貸出은 一億五千八十二萬圓으로 十一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二百六十二萬二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千二十萬二千圓의 各增加이다 그러고定期預金은 겨우 半個月間에 一千五百八十八萬二千圓의 激增인데 이것은 一般의定期預金이아니고 金融組合이殖銀에預金한것이 아닌가觀測된다

組銀證券所持減

十一月末現在의 京城組合銀行有價證券所持高는 一億九千四百九十七萬四千圓으로 十一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二十五萬六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千九百十八萬三千圓의 各各減少하엿다

米日爲替少高

【大阪四日發聯合】四日의米日爲替 前日比較 賣二十八弗七十八仙으로二仙高 買二十八弗七十五仙으로二仙高

經濟界消息

○朝鮮織物總會＝五日午前十一時부터共益社에서 第六期定期總會를열고 七分配當案을 異議가업시 可決하고 取締役의 總改選은 高井兵三郎、宮林泰次、桐田元次、小川春千代 中谷庄兵衛、矢部豊次 吉田秀次郎의 諸氏가 重任되고故監査役梶原末太郞氏遺族에弔慰金贈呈의件은重役一任으로 決定하엿다고

○京城商議部長會議＝京城商工會議所의 商業、工業、交通、貿易、理財의 五部는 從來各個別로 事業을行하얏스나 此等部의目標인 事業은 相互密接한關係가잇슴으로 今回各部의 連絡을取키爲하야 部長會議라는 新機關을 設키로되엇는데 近間 그第一回部長會議를 開하리라고

○鍾紡서비쓰·스테-숀 十日開業＝京城本町二丁目에 新築의 鍾紡서비쓰·스테-숀은 落成되엿스므로 十日頃부터 開業할터인데 初代店長은 平賀三男氏로 決定하엿스며 그新築披露는 鍾紡서비쓰株式會社 專務石村貿氏가 六日頃 入京할터이라고

朝鮮 滿洲 兩銀行間協定

不遠間成立될機運

【東京電話電通】滿銀 朝銀兩行의 第七回業務協定會議는 四日午後二時부터 丸內中央會議所에서 열고 滿銀側으로부터 鷲尾理事 朝銀側으로부터 松山 色部 橫瀨各理事 並 中野總裁席主事特히 大藏省으로부터 荒井銀行局長 原口特銀課長이 出席하야 細目에 關한 折衝을 거듭하얏는데 兩者의 意見은 相當히 接近을 示하야 느저도 今月中藥頃까지에는 一段落을 告하게쯤되엇다 右에對하야 朝銀側으로서는 今後滿銀側의 一國의 中央銀行으로서 그機能의 完璧을期하는同時에 朝銀도 또한 滿洲國內에잇서서 單純한 普通銀行으로 同國産業의 回復에 資한다는 各各의 立場을相互尊重할것이라는 協調의 原則을 어데까지 擁護하려는 態度를表明하야 一、朝銀에對하야 滿銀의 普通業務讓渡 一、滿洲國內流通朝銀券回收의件等은 將來는 如何間 이를 即刻 實現함은 實際上 거이不可能하나 滿銀側으로서 日本銀行에 對하야 카렌지함과如한 行爲가 업는限 어데까지던지 一國中央銀行으로서의 滿銀機能發揚援助를 不惜한다하야 該協定의 圓滿成立도 不遠하다고 樂觀視하고잇다

普銀業務는 朝銀에移讓

◇…漸次進行할方針

【東京電話聯合】朝滿兩銀行의折衝은 드되여 一、二回의 東京的協議로 協定成立을 보게되엇는바 滿銀側은 어데까지던지 中央銀行으로 그機能使命을 發揮할것이며 普通銀行業務에 關하야서는 朝銀과의 營業上의競爭을 避하도록 適當한抑制를 加하기로하고 直時 普通銀行業務를 朝銀에 移管하게되지안는다할지라도 中央銀行으로서의 立場에서 普通銀行業務는 事實上 漸次 朝銀에 移讓하기로 諒解가 成立되엇슴으로 豫定대로 年內에 圓滿解決을 보게되엇다

商況(五日)

株式 鈍狀後에 反騰

前場鈍狀 今前場도何等의 新味가업시 市勢는柔弱鈍狀이다가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一圓十錢低인百七十圓四十錢 日産五十錢低인七十一圓丁 大新四十錢低인百圓五十錢 朝新不變인三十一圓十錢에各大引되고 日魯五十九圓丁 拓新十四圓五十錢이 잇섯다

後場反騰 後場은 東新百七十一圓五十錢 日産七十二圓丁 大新百一圓九十錢 朝取七十二圓丁 朝新三十一圓丁에 高寄後續强裡大引

東新關門往來 强硬對峙深甚

東新은 今前場도 百七十圓中心의 揉合이 거듭될뿐이엇는데 軟派는 말하되 大勢的으로强한 市勢라 할지라도 目前으로보면

1、好材料란 이미 十二分 市勢에 織込되엇더이오

2、東京東新 四十餘萬株의 大取引組는 整理가 必然히 잇슬것이오

3、갈피를 잡을수업는 北中問題、露滿의 對伊制裁問題、軍縮問題等의 推移를 보아야할것이오 簡單히 樂觀하야 强材料로 取扱할수업다

以上으로보아 五十圓棒上의 뒤이라 十圓棒은 當然하고 二十圓가량 即 百五十八圓內外로 떠러저도 조흐리라 하는一面硬派는말하되 國威伸長을 압두고 躍進日本의 形容을 反映할東新을 생각하면 百七十圓이비싸다하야 갑으로 實感키는 無謀하며

1、膨脹豫算은 成立되엇고

2、北中問題는 中間波瀾은 잇지만 結局日本에 有利히 解決될것

3、政府放出資金에 依하야 年末金融樂觀으로 金利一段低下로 新春高氣分을 培養코 잇는것

等으로보아 大取調라것이 거리낄것이 못되며 年末高 必至라 보고잇다。 如斯히 强弱觀이 東新百七十圓을 中間에노코 懸殊하야 二十日가량남은 年內立會에 果然어떠케될것이지? 東新大阪에서의 硬軟變方의 對峙가 甚하야 前途가 注目되며 今後展開如何가 興味視되엇다。

『못지쓰기』論

好材料는이미 買齋한로年末에 爆發시킬好材料가 나올것갓지도 안호니 비록明春에 큰市勢를바란다할지라도 年內는恒例의『못지쓰기』市勢로 큰變化가업시 幾分失望裡에 越年케될것이라는消極的無市勢論도 생긴모양이다

山一買煽에反抗

鐘新、東電、鄆船等을 循環買煽하는 山一證券自體의 大思惑은 東新、大阪市場에서 크게注目하는바로 이煽揚의 策略이 有終의成果를 得할與否가 問題視되는터인데 一方으로는 山一에對한 反抗氣分이 萌生되어감을따어 今後形勢가 一層興味視되고잇다

實物株前場取引

取引高一八〇枚 ▲滿洲電信電話 一〇四▲日産新三 五三▲大島製鋼 二四〇▲浦賀渠 三〇〇▲大同電力 四八〇 昭和人絹 三五〇▲三菱電工業 五七、七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金融의 前途樂觀氣로 氣配强堅이오 內債 十錢高進되고 外貨도 强調를呈하얏다 甲五分利 一〇四、五〇

期米 軟調裡에下淮

前場反落 昨後場 阪地三十八圓〇二錢止와 共히 二十八圓八十五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什三十一圓〇三錢인 二丁高를 蹤하고二十八圓八十七錢인 二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五節三十圓八十五錢으로 九十一錢에 止함을傳하야 七十四錢으로 結局八十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八圓七十八錢에 二丁低로 始場後八十錢으로七十九錢에 顛前이고八十五錢에止場하다

公定米價豫想 一圓高는無疑

今日格差委員에서 本年産米의公定價格을 決定發表할터이라하야 一般米界에서는 注目을 하고잇스니 昨年의公定米價보다 一圓乃至一圓五十錢程度의 引上을 할이라 하야 一時市勢에織込되바도잇거니와 特殊한强材料가업서 保勢를支持하는今日인만큼 公定米價發表를 期待하고잇다 果然公定價가發表한後의 市勢가 如何할가함을 一考하면 日本內地米作이二個年繼續으로 前途需給不安을豫想케하는 本米穀年度에잇서적어도一圓程度의引上은 無疑할것이며떨하서그行動은 旣히一巡하엿다할수잇슴으로 公定米價의引上과共히 一時高價를示한다할지라도 그程度를 可히알수잇스며一高後에는 반드시 反落을豫期할수잇다 그理由는 最高公定價가 三十二圓五十錢이라 假定하면 最低公定價는 二十四圓十錢이될것인바 今東阪兩地의 三十一圓을 中心으로한 市勢는 最低價의 距離보다 最高價에 接近하여잇슴으로 此邊에서 繼續昂騰하기는 時期尙早의 嫌이업지아니하다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馬越對田中戰 前途興味津津

客月末에 納會된 阪地當限은 買方馬越老가 微妙한 가진 策動을 다하야 一時는 受米를 忌避하는것처름 賣方潮政과의 當先一萬千餘石의 合計米受渡으로 買方의 安心을 與하고서 結納會當限時에는 猛烈히 買煽하야 一擧에 七十丁이나 突騰케하엿섯다 그런데 本月의 當限은 如何한 結果를 招來하게되지 馬越對田中戰은 갈사록 興味津津할 모양인데 昨今 市中商談에 依하면 本月의 當限納會는 年末의 關係로 二十日에 終焉을 告하게되므로 時日의關係上 渡米蒐集에 非常한 支障을 與하리라 한다 日本內地는月下 九州産米는 過高이므로 問題도 되지 안코 比較的 低價인 北鮮米로도 五、六十錢의 採算不合으로 結局은 朝鮮米에 着眼하게 될모양인데 朝鮮米도 또한 探算上尖貨일뿐아니라 時日의 關係가 압흐로 蒐集이 容易치못하리라고 買方은 觀測하며 그反映으로는 大賣玉을 擁抱한 田中員一派는 一時戰望하다가 突然東京에까지 戰線을延長하야 確乎不拔의 態度를取함을보면 買方도또한 無視할수업는 形勢이다 今後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地場乘換 中東側乘換 目前側投東京側乘換
▲買方＝株式側 朝鮮側乘換 正米側乘換 地場處分

各地正米

京城下淮 定期低含이나마 天候念慮로 賣物減退하야 閑散裡에保合인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不變 政策의推測難과 定期의漸落으로 買方이極度로不氣乘이나마 場面賣物薄으로 氣乘[illegible]

木浦軟化 政府買出動이업는 人氣가濃厚하야 阪神定期의 下放을고 取引不振인데다가唱은十錢下押이나 雙方共히形勢觀望으로 市況이 자못閑散하야 丸木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釜山弱含 市場 賣物四千叺依然實行不立이나마 低價賣物이影響을滯하야 産地不賣氣味이나 定期不振으로 買氣이업고 氣配十錢低의 商狀으로 角ヲ三等二十八圓七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八錢

大邱反落 低昂的 賣行不振으로 産地도 幾分軟化하야 歲末金融의賣物이 入하고 期米의軟調를反映하야 一擧二十錢反落을演한 角ヲ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三十錢

群山小弱 日本內地의 注文이 依然小數에限하야 問題가 안되고 定期不味를移하야 新規의取引은 殆無하야 市況小弱 推移로 菱ク三等二十八圓六十五錢 四等二十八圓四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買賣分析 金白銀金
金城商會 電話光化門二九三七番 京城鐘路一丁目二十二番地 文注方地 代金引換取扱御事(送料先方)

金·銀·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illegible]番地(小廣橋通) 電話本局三三一六番 振替京城五〇四[illegible] 文注方地 代金引換取扱 送料先金

玉蜀黍購入
五圓四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産業組合經由多量買入함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産工業株式會社

金融 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五日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치카코期麥◆ [illegible]
◆綿花冲價◆ [illegible]
◆鯨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取引所 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新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五日

◆新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釜山 大邱 群山 木浦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仁川 群山 木浦 大邱 鎭南浦 新義州 元山 咸興 馬山 平壤 釜山 [illegible]

商品 五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